

金正日 리더십 研究

1994. 10

全 賢 俊

(北韓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序 文

김일성 사후 世人의 관심은 후계자 김정일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주된 초점은 김정일이 강력한 후원자였던 김일성의不在에도 불구하고 최고리더로서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김정일은 김일성만큼 카리스마를 보유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근간이 父親 김일성의 후광뿐이기 때문에 후광을 잃은 김정일은 조기에 실각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早期崩壞論에 강한 반발을 나타내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는 논리를 근거로 대두되고 있다. 즉 김정일은 아버지의 후광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통해 후계지위를 확보하였고, 20여년 이상의 實務經歷을 통해 지도력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충분한 국가경영과 위기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김정일은 장기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양자간의 논란은 학문적 천착의 결과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偏向에서 발로된 것이라 생각된다.

早期崩壞論은 역사발전의 보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 長期持續論은 북한의 특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자간의 첨예한 논란은 北韓學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국민을 혼란시키고 정책당국자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김

정일 리더십의 안정성에 대한 학술적 고찰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당위성이 도출되기 때문에 本 室이「金正日 리더십 研究」에 착수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북한연구가 그렇듯이 자료미비는 본 연구를 어렵게 하였다. 특히 그동안 김정일은 권력 2인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 정보는 물론 直接 接見한 사람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에 대한 정보는 매우 단편적이고 저널리스틱(journalistic)한 것들 뿐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원전과 소수의 귀순자 증언만을 자료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본 연구 또한 많은 약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한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망명자중 한 고위급 인사의 증언으로 북한의 권력구조와 문헌 외의 사실을 확인보강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제 본 연구는 김정일연구의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계기로 김정일에 대한 보다 많은 창조적인 學術論文이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위해 시간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동학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1994. 10

民族統一研究院

北 韓 研 究 室

要 約

본 연구는 현재 북한내 權力序列 1위이며 ‘수령’의 후계자인 김정일의 리더쉽이 향후 安定的일 것이냐 不安定的일 것이냐를 분석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김정일의 후계자로서의 正統性 與否, 強制機構 및 엘리트 掌握 여부, 諸 政策의 效率性 여부 등을 주요 연구문제로 상정하였다.

1. 首領唯一支配體制와 金正日 리더쉽의 正當性

김정일 리더쉽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그가 어느 정도로 支配者로서의 正當性을 가지고 있는나하는 문제이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정치적 리더가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전통적·합법적·카리스마적 지배 등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베버가 주장하는 전통적 지배는 오랜 전통이나 관습이 통치자에게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경우로서 被治者들이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된다. 전통적 지배에서도 가장 典型的인 家父長制 즉 家產制(patrimonialism)的 遺産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首長의 명령권 내지 지배권은 수장의 강대한 私權이 된다. 따라서 가산제적 국가에서는 권력세습이 首長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북한은 수령이 절대권을 행사하는 家父長制的 國家이다. 즉 북한은 최고지도자인 ‘수령’을 아버지로, 노동당을 어머니로 대비하는 등 국가를 하나의 ‘大家庭’으로 상정하고 ‘家族’인 인민들이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儒教的 家産國家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령은 국가의 주인이고 그는 국가를 가산처럼 自意的으로 운용하는 바, 정권은 家産의 상속처럼 수령이 지명하는 자에게 상속시킨다. 이 때 家臣들은 수장의 결정에 대해 절대 복종해야할 의무를 진다. 수장인 수령의 행위에 대해 반항하는 것은 傳統破壞者로 낙인찍혀 추방(숙청)되게 된다. 그리고 북한인민들은 수령을 ‘나랏님,’ ‘主君,’ 더 크게는 절대자 내지는 초월자로 인식하고 있고 수령의 지위나 그의 행위는 일반인들로서는 할 수 없는 至高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민들은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수령의 고유권한으로 인식, 당연시한다.

결론적으로 前近代的인 요소인 人情, 義理, 緣故, 禮節 등을 주요 德目으로 삼고 있는 북한인민들이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있는 김정일에 도전하는 행위나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북한인민들은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령’ 김정일이 건재함으로써 국가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精神的 安定을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2. 統制機構 掌握과 金正日 리더쉽

최고리더의 強制機構 掌握 與否는 리더쉽의 안정성 문제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북한처럼 강력한 동원과 통제를 통해 체제나 정권을 유지하는 국가에 있어서 강제기구의 장악과 이의 효율적 운용은 리더쉽의 안정에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김정일 리더쉽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이 북한의 最高 強制機構인 黨, 특히 黨組織指導部 및 宣傳煽動部에 대한 장악 정도를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노동당은 정치국과 비서국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실질적 의미에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비서국이 최고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가장 중요한 전문부서이다. 조직지도부는 정치국과 비서국은 물론 군부, 행정부 등을 예외없이 감시·통제하여 왔다. 특히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이 두 부서는 체제 및 권력유지를 위한 中樞的 役割을 담당하여 왔다. 김정일은 그동안 조직지도부를 통한 黨·政·軍 엘리트 및 인민들의 身體的 統制와, 선전선동부를 통한 精神的 統制를 가함으로써 후계자 지위를 공고히해 왔다.

당 조직지도부는 1~13과까지 나뉘어져 있고 각 과가 국가의 주요 부서를 맡아 감시·통제·인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

히 9, 10, 13과는 무력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검열기구, 군 등을 감시통제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는 최후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일은 「3선(당조직계통, 행정계통, 보위부계통)·3일 보고·통보체계」와 ‘김정일직보체계’를 통해 全黨·全軍·全國의 모든 단위와 부문의 기관·기업소들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자신에게 직접 보고되도록 구조화시켰다. 또한 김정일은 모든 간부의 任免問題를 조직지도부에 집중시키고 조직지도부장 겸 조직비서인 자신의 직접적인 지도·통제하에 간부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결국 김정일은 당비서국 특히 조직지도부를 통해 黨·政·軍 관료들의 一舉手一投足을 감시·통제함으로써 일탈을 방지하고 리더쉽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고 있다.

한편 선전선동부는 조직지도부와 함께 당기구 중 가장 중요한 專門部署 중의 하나이다. 선전선동부의 임무는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하는 것이다. 김일성주의화를 위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군중을 동원하고 ‘온 사회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등을 연구하는 것이 이 부서의 임무이다. 선전선동부는 간부들을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을 신봉하도록 하고 이들을 통해 일반 인민들에게 주체사상의 優越性을 강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선전선동부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관한 각종 영화, 연극, 소설, 강의교재를 제작, 배포하고 思想教養을 위해 인민들을 동원한

다. 결국 선전선동부는 간부들을 김일성주의로 확고히 무장시켜 인민들에게 김일성주의를 선전하도록 하고 각종 ‘혁명,’ ‘투쟁,’ ‘전투’에 인민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정일은 관료 및 인민들에 대한 선전선동 강화를 위해 ‘총화’와 학습제도를 개선하였다. 즉 그는 ‘2일 및 주간총화’ 제도를 확립하였고 학습에 필요한 각종 영상자료와 장소를 확충하였다. 그리고 만일 어떤 간부나 개인이 선전선동부의 동원에 불응하였을 경우, 그는 유일사상체계나 유일지도체계를 반대하는 자로 분류되고 조직지도부를 통해 철직이나 당적지도를 받게 되고 심한 경우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되게 된다.

한편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와의 관계를 “조직부는 의사와 같고 선전선동부는 약제사와 같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간부들의 黨生活를 통일적으로 정확히 評定하기 위하여 評定書는 조직지도부가 선전선동부와 논의하여 하나로 만들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은 통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部署本位主義에서 탈피하여 ‘配合作戰’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당생활을 조직지도부에서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전선동부도 당생활, 특히 당사상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지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 의한 恐怖政治

를 통해 현재와 같은 獨裁體制를 維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金正日의 리더쉽 行使와 結果

일반적으로 정통성은 크게 事前的(ex ante) 정통성과 事後的(ex poste) 정통성으로 나뉘 볼 수 있다. 前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김정일 리더쉽은 事前的 측면에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김정일이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북한인민들은 世襲制度 자체에는 불만이 없다하더라도 김정일 개인에 대한 불만은 표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事後的 정통성은 그만큼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일은 1973년 등장 이후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위해 매진하였다. 김일성주의화의 요체는 사상개조와 물질적 풍요 등 두 가지였다. 첫째, 그는 인민들의 사상개조를 위해 각종 ‘總和’制度를 도입·강화하였고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 도입하는 등 주체사상을 체계화하였다. 둘째, 그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物質的 要塞’의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1980년 대내외적으로 공식 후계자가 된 이후 인민경제향상을 위해 對外貿易에 대한 관심을 높여갔다. 김정일이 대외무역을 중시하게 된 이유는 인민경제의 낙

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1983년 “인민들에게 빈 밥그릇을 놓고 사회주의제도가 좋다고 선전하여서는 그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옳게 인식할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에 정책적 주안점을 들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1984년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를 통해 농업발전, 경공업발전, 유통발전, 급양사업발전, 편의봉사사업발전, 주택건설 확대 등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1984년 9월에는 「합영법」을 제정, 대외무역을 적극화하였고 1986년에는 대외무역과 경제적 자립이 상호모순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였다. 그는 ‘主體式 實用主義’를 강조하였고 외화벌이를 위해 經濟特區를 도입했으며 개방 관련 법들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다. 즉 그는 「외국인소득세법」을 비롯하여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법」, 「자유무역지대법」 등을 발표하여 외국의 投資誘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정일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하고, 1992년 「정무원결정」을 통해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전제하는 한편 대외무역사업을 ‘전면적이고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는 1993년 12월 經濟失敗를 인정하고 향후 2~3년간을 완충기로 설정, 이 기간 동안 농업, 경공업, 무역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혁명적 경제전략’으로 설정

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부족한 외화와 낙후된 기술습득을 위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미국을 비롯한 西方國家들과의 대외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하고 있다.

한편 김정일은 수령 후계자로서의 권위확보를 위해 주택건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는 1989년 12월부터 광복거리와 통일거리에 ‘살림집’ 5만세대건설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것을 1992년 김일성 80회생일에 맞추어 완성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통일거리 2단계건설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1만 6천세대의 아파트건설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지속적인 쇠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제도 자체의 모순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統治方式 때문이기도 하다. 김정일은 인민들의 물질생활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動員政策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일정기간 동안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生産性을 제고하고자 하는 생산방식이다. 따라서 이것은 의도한 만큼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즉 運動의 日常化로 인해 주민들의 경각심과 집중력은 저하되었고 당연히 생산성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속도전,’ ‘70일전투’식 人民動員方式은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였다.

김정일은 물질적 토대구축을 위해 6개년계획(1971~1976)의 조기완수와 10대경제건설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전’을 전

개하였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었다. 그러나 속도전은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인민들의 노동력에만 의존하여 발전을 시도하는 原始的 生産性向上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즉 각종 운동과 구호는 인민을 피곤하게 하였고 ‘緊張의 日常化’를 촉진시킴으로써 오히려 정신을 이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김정일이 인민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記念碑的 大建築物’ 건설에 과잉투자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그의 권력의 원천인 수령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라는 정치적 필요 때문이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비롯, 김일성경기장, 인민대학습당, 빙상관, 청류관, 평양제1백화점, 만경대유회장 등 ‘기념비적 대건축물’을 건설하였다. 아울러 그는 전국에 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선물관 등을 건설·보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大建築物들의 건설은 김일성우상화에는 기여했을지 모르나 국고의 낭비를 가져 왔고 인민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김정일의 정치적 인기를 하락시키고 政治的 負擔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結 論

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김정일 리더쉽은 '수령의 후계자'라는 배경과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 내부 통제력을 통한 엘리트와 인민의 장악 등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자신이 인정하고 있듯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즉 道·農間 격차,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격차 등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관료와 인민의 불만이 서서히 노정되고 있다. 특히 經濟的 窮乏은 관료를 腐敗시키고 인민들을 社會主義에 대한 실망으로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이 비록 事前的 정통성과 강제기구를 확보하고 있다 할지라도 事後的으로 人民生活 向上을 위해 리더쉽을 효율적으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長期的 觀點에서 김정일 리더쉽은 安定性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1. 研究 目的	1
2. 研究 方法 및 분석틀	2
第 II 章 首領唯一支配體制와 金正日 리더십의 正當性 ...	7
1. 首領의 北韓政治史的 意味	8
2. 首領論의 概念과 首領中心的 리더십론	15
3. 首領 後繼者 金正日의 正當性	23
第 III 章 統制機構 掌握과 金正日 리더십	35
1. 組織指導部를 통한 官僚들의 統制	38
2. 宣傳煽動部를 통한 官僚와 人民의 統制	53
第 IV 章 金正日의 業務執行 成果	65
1. 思想改造	68
2. 經濟政策	75

第 V 章 結 論	95
參 考 文 獻	102

第 I 章 序 論

1. 研究 目的

김정일은 ‘수령’ 김일성의 長子로서 이미 1972년부터 實質的 統治者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리더쉽을 효율적으로 발휘하여 북한이 국내외적으로 봉착하고 있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 의문의 주요 초점은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것은 단지 절대자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으므로 강력한 權力後援者인 김일성의 사망은 김정일 리더쉽을 일순간에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정일 리더쉽의 安定性에 대한 평가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김정일은 리더쉽이 부족하여 그의 정권은 1~2년 정도의 短命으로 종식될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김정일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북한에 관한 정보부족 등의 복합적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체제의 變化, 김정일 정권의 向方, 김정일 리더쉽의 安定度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랫동안 통일을 염두에 두어 온 우리로서는 당연한 관심사항이다. 특히 북한정치체제가

近代的 觀點에서 용납할 수 없는 독재·폐쇄체제라는 점에서 우리는 북한체제의 변화와 이와 관련한 김정일 정권의 안정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대안은 規範論理에 의해서가 아니라 치밀하고 정확한 現實論理에 의해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체제 및 김정일에 대한 的確한 학문적 천착을 통해서 그들의 強弱點을 도출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미래예측을 위한 우리의 일차적 관심은 김정일 리더쉽이 얼마나 안정적일 것이냐에 대한 연구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북한 체제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김정일 리더쉽의 安定性 與否를 고찰하는데 그 目的을 둔다.

2. 研究 方法 및 분석틀

어떤 리더가 그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느냐 불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느냐의 여부는 곧 리더쉽 문제와 직결된다. 즉 리더가 諸般 難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추종자들을 적절하게 인도하여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리더가 리더쉽을 효율적으로 발휘

하기 위해서는 첫째, 리더가 리더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 리더가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추종자들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하고, 셋째, 리더가 목적지 도달시까지 추종자들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물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리더가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했을 때 추종자들은 리더에게 반항하여 일탈할 것이고 결국 목표달성은 좌절될 것이며 리더 자신까지 몰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리더십을 “정당성을 보유한 리더가 목표달성을 위해 각종 정신적·물질적 수단을 동원, 추종자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기술과 활동”¹⁾이라고 操作的(operational)으로 定義하려 한다.

김정일은 ‘우리식 사회주의’ 유지라는 국가목표달성을 위해 리더십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즉 김정일은 인민들의 복종을 획득하기 위해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김정일 리더십의 安定性 與 否를 고찰하기 위해 리더십 特性(traits)理論을 援用하려 한

1) 리더십에 대한 개념규정은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규정에 대해서는 Ralph M. Stogdill, *Handbook of Leadership* (New York: The Free Press, 1974), pp. 8~16; James M. Burns, *Leadership*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8), pp. 18~23; 朴乃會, 「現代리더십論」(서울: 法文社, 1993), p. 21; 吳允晉, 「리더십론」(서울: 日善出版社, 1994), pp. 21~22; 김명훈, 「리더십論」(서울: 大旺社, 1980), pp. 101~09.

다. 이 이론의 대표자는 스톡딜(R. M. Stogdill)이다.²⁾

古代로부터 1940년대까지는 권력유지의 근간으로서 지도자의 특성이 중요시되었다. 특성이론은 지도자가 일반인들과는 달리 독특한 특성을 천부적으로 타고 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류는 특정 지도자의 특성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그러나 資質論이라 불려지는 이 연구 방법은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였다. 그 이유는 리더와 非리더의 구별을 위한 명확한 測定方法이 없고 리더의 독특한 능력도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최고리더 개인의 영향력이 絶對的인 體制를 분석하는 데는 유용한 방법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체제처럼 개인의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리더쉽을 분석하는데는 이 이론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스스로 首領의 唯一的 支配體制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변용이다. 과도기적 국가형태인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조아에 대한 프로레타리아의 계급독재를 정당화한다. 이 때 계급독재의 효율성은 리더쉽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 즉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리더의 등장은 계급독재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이같은 이유에서 북한은 수령의 지위를 확립하고 혁명의

2) 朴乃會, 「現代리더쉽論」, pp. 58~59.

지도자인 수령의 역할을 거의 절대시한다. 따라서 ‘수령의 후계자’인 김정일 리더십 연구는 리더 個人의 特性을 獨立變數로 간주하고 있는 리더십 특성이론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리더가 그의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보유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스톡딜은 피지배자들이 보유하지 못한 리더의 주요 특성요인으로 6가지를 들고 있다.³⁾ 즉, 身體的 特性, 社會的 背景, 知的 能力, 個性, 課業遂行要因, 社會關係要因 등이다. 신체적 특성은 리더의 연령, 신장, 체중, 외모 등이다. 사회적 배경은 리더가 家系上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느냐는 문제이다. 지적 능력은 판단력, 결단력, 조직력, 지식수준, 화술 등이다. 개성은 자신감, 창의성, 민첩성, 독립성, 신념 등이다. 과업수행요인은 성취욕구, 책임감, 업무추진력 등이다. 사회관계요인은 대인관계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 김정일에 관한 정보나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신체적 특성, 개성, 사회관계요인 등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거나 眞實 與否에 대한 논란이 심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어느 정도의 情報獲得이 가능한 사회적 배경, 지적 능력, 과업수행요인을 분

3) Stogdill, *Handbook of Leadership*, pp. 74~75.

석을 위한 변수로 사용하려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편의상 사회적 배경을 복한 政治文化를 고려한 正統性(legitimacy) 문제로, 지적 능력을 개인적 차원의 判斷·組織力으로, 과업수행요인을 인민적 차원의 業務執行(performance) 成果로 援用하여 분석하려 한다.

이것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 보면, 첫째, 최고리더의 정당성문제는 권력의 권위확보와 안정적 통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최고리더의 判斷·組織 能力은 目標設定 및 達成의 成敗를 좌우한다. 즉 최고리더를 보좌하는 엘리트와 그들을 통제하는 強制機構의 掌握 與否는 리더십의 안정에 필수적이다. 셋째, 리더가 국가목표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달성하느냐는 문제는 追從者들의 支持 與否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김정일 리더십의 正統性 問題 說明을 위해서 베버(Max Weber)의 이론을 원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북한의 법·규정, 김일성·김정일 문헌 등 1차자료와 북한연구 단행본, 각종 분석논문, 귀순자 증언 등 2차자료이다.

第 II 章 首領唯一支配體制와 金正日 리더쉽의 正當性

김정일 리더쉽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느 정도로 支配者로서의 正當性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도자의 정당성 여부는 그 국가의 政治文化的 傳統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된다.⁴⁾ 즉 철저히 선거에 의해서 지배의 정당성이 창출되는 국가도 있고, 세습제에 의해 지배의 정당성이 창출되는 국가들도 있으며 세습왕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왕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들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성격의 국가인가? 북한은 가부장제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臣民型 政治文化를 소유한 국가라 할 수 있다.⁵⁾ 즉 북한은 최고 지도자인 수령을 아버지로, 노동당을 어머니로 대비하는 등 국가를 하나의 커다란 ‘大家庭’으로 상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儒教的 家産國家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인민들은 ‘아버이 수령’에게 孝誠과 忠誠을 다하고 수령은 자식인 인

4) Gabriel A. Almond and G. Bin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8), p. 30.

5) 徐載鎭·金台鎰, 「北韓住民의 人性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 14; 崔星, “首領體系的 形成過程과 構造的 作動메카니즘에 關한 研究”(高麗大學校大學院 政治外交學科 博士學位論文, 1993.12), pp. 191~92.

민들에게 ‘肉親的 配慮’를 함으로써 ‘사회주의 대가정’인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⁶⁾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과 그에 따른 김정일 리더십의 효율적 작동 여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북한정치체제와 리더십의 特性 및 交替制度 등에 대해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가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價値論的 論爭은 유보하고 現實論的 立場에서 김정일 리더십 자체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베버의 3가지 이념형 중 傳統的 支配의 概念을 원용하려 한다.⁷⁾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가부장제적 정치문화가 강하게 잔존해 있고 리더십 정당성도 世襲에 의해서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1. 首領의 北韓政治史的 意味

북한의 최고리더는 수령이다. 북한은 수령을 정점으로 피라밋식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獨裁體制이다. 북한의 수령은 王朝時代의 왕을 능가하는 절대권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6)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1992. 1.3),”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p. 104~07.

7) 黃山德, 「막스 베버」(서울: 瑞文堂, 1977), p. 134.

수령이나 수령의 후계자가 되지 않고는 누구도 인민을 통치할 수가 없고 누구나 수령의 ‘교시’에 의해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물론 수령은 김일성이다.

김일성이 ‘수령’이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항일빨치산 경력, 둘째는 사회주의적 개혁과 정부수립, 셋째는 한국전쟁에서의 ‘승리’ 등이다.⁸⁾ 우선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활동 여부는 이제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⁹⁾ 물론 그가 북한의 선전처럼 위대한 革命家는 아니었다는 것도 定說로 되고 있다.¹⁰⁾ 어쨌든 오늘날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빨치산활동을 그에 대한 최대의 찬사증거로 삼고 있다.¹¹⁾ 해방 후 북한은 해계모니장악을 위한 각 파벌간 및 개인간의 각축장이었다.¹²⁾ 그러나 그 중에서도 蘇聯의 적극적 지지

8) 「북한중앙방송」, 1994.8.8.

9) 양성철 교수는 “비록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도 김일성의 항일무장계털라투쟁 경력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성철, 「분단의 정치」 (서울: 한울, 1987), p. 137.

10) Dae-Sook Suh, *Kim Il Su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 31.

11) 북한은 그들의 주체사관의 출발시점을 항일무장투쟁에서 찾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의 혁명활동이 1926년 화성의숙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13.

1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h, *Kim Il Sung*, pp. 59~109 참조. 파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林 隱, 「金日成正傳」 (서울: 沃村文化社, 1989), pp. 159~66.

를 받았던 김일성¹³⁾이 가장 유리한 입장에서 정치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는 여타 政派의 도전을 극복하고 1948년 초대 수상에 취임할 수 있었다.¹⁴⁾

수상취임 이전, 김일성은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및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스탈린식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¹⁵⁾ 이것 또한 김일성의 정치적 정통성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는 1950년 「민주기지론」에 입각하여 한국전쟁을 도발, 패전하였으나 ‘北侵論’에 입각한 ‘김일성의 효율적 방어론’이 등장, 김일성은 구국의 영웅이 되었다.

한편 그는 귀국초기의 열악한 권력기반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빨치산식 政敵除去 방법을 동원하여 조선노동당을 창

13) 김일성에 대한 舊蘇聯의 지지는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알려졌다. 물론 그것은 1955년 이후부터 동구에서처럼 지속적인 主從關係는 되지 못하였다. 김일성이 舊蘇聯의 지지를 받은 사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사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권 (서울: 중앙일보사, 1992), pp. 84~90.

14) 김일성이 수상이 되기까지의 투쟁과정은 裴垣達, 「北韓權力鬭爭論」 (서울: 학문사, 1990), pp. 135~74 참조.

15) 북한에서 김일성과 임시인민위원회 및 인민위원회와의 관계는 김용복, “해방 직후 북한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및 김주환, “해방 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김남식 외, 「解放前後史의 認識 5」 (서울: 한길사, 1989), pp. 180~327.

건함으로써 당권장악에 성공하였고,¹⁶⁾ 이같은 그의 통치력이 그를 수상으로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물론 그의 수상취임이 곧 완전한 헤게모니장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1956년 '8월 종파사건'까지 완전한 의미에서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투쟁하여야 했기 때문이다.¹⁷⁾

혁명 1세대인 김일성은 해방 후 비슷한 경력을 소유한 수많은 政敵들과 피나는 투쟁을 해야 했다. '혁명동지'들과 힘겨운 경쟁을 하던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반대파 제거를 위한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唯一支配體制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¹⁸⁾ 한국전쟁은 지주, 관료들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理想的 同志'들까지 도태시킴으로써 북한내 지배계급을 單一化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¹⁹⁾ 결국 김일성은 한국전쟁과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정치적으로는 종파를 척결하였고, 이념적으로는 主體를 수립하는 성과를 보였다.²⁰⁾

16) 김일성이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方仁厚, 「北韓 '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서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0), pp. 81~234 참조.

17) '8월 종파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洪淳寬, "가까이서 본 김일성," 「世界日報」, 1991.10.23, 30 참조.

18) 한국전쟁이 북한에 미친 영향은 김학준, 「한국전쟁」(서울: 박영사, 1993), pp. 349~56 참조.

19) 한국전쟁 후의 계급구성에 대해서는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서울: 백산서당, 1990), p. 207.

20) 이 사건 이후 김일성은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에 대해

이러한 과정에서 김일성은 한국전쟁 기간에 최초로 ‘수령’이라는 호칭을 받기 시작하였다. 즉 1952년 12월 15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3기 제5차 전원회의때 김일성의 연설 후 장내에는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게 영광을 드린다”는 환호성이 퍼졌다.²¹⁾ 김일성에 대한 수령화작업은 이후 본격화되었다. 당시의 연안파, 소련파 등은 이것을 非社會主義的인 것으로 비난하였으나,²²⁾ 이것은 김일성이 이들에 대해 大肅清을 하도록 하는 빌미만 제공했을 뿐이었다. 즉 김일성 개인에 대한 우상화반대가 1956년 소위 ‘8월 종파사건’을 야기시켰고 김일성의 일방적 승리는 그의 個人偶像化를 강화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김일성의 성공적인 종파척결 이후 축제분위기에서 개최된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의 수령화작업이 보다 가시화되기 시작하였고 1967년 7월부터 김일성은 공식적으로 ‘위대한 수령’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²³⁾ 1967년 7월 당의 이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였다. 특히 ‘宗派’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척결하려 하였다. 또한 이후 김일성은 親姻·戚 외에는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갖기 시작하였고, 권력세습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8월 종파사건’의 북한적 의미는 조선로동당 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p. 346~52.

21) 김일성,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김일성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p. 337.

22) 林 隱, 「金日成正傳」, pp. 279~81.

23) 崔 星, “首領體系の 形成過程과 構造的 作動메카니즘에 關한

론지인 「근로자」에서는 首領論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추진성과 여하는 당의 령도적 역할에 의존하고 당의 령도는 수령의 역할에 의해 좌우된다. 수령은 노동계급 앞에 정확한 투쟁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혁명력량을 확고히 결속시켜 그들을 조직 동원하고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맡는다”²⁴⁾고 이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1970년대 들어서부터 수령은 최고의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왜 김일성과 그의 부하들은 김일성을 수령으로 호칭하려 하였을까? 그 이유는 외형적으로는 김일성을 舊蘇聯의 스탈린과 동일한 위상으로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을 것이나, 내면적으로는 김일성을 絶對化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보유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것은 김일성이 누구를 막론하고 불복종자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숙청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²⁵⁾

한편 북한은 1970년 5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맑스-레

研究,” pp. 48~49.

24) 엄기형, “항일유격대원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 「근로자」 (1967.7), p. 9.

25) 이 당시의 각 파벌에 대한 숙청 내용은 林 隱, 「金日成正傳」, pp. 239~300.

년주의와 함께 統治理念으로 ‘확고부동하게’ 정식화²⁶⁾하고 1972년에는 개헌을 통해 수령을 制度化하여 주석제를 신설했다.²⁷⁾ 이것은 김일성이 정신적·제도적 측면에서 유일지배체제 구축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김정일 후계체제 확보를 위한 전주곡이었다.

1973년 사실상 후계자가 된 김정일이 1974년 2월부터 ‘은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시도하면서 首領의 唯一的 支配體制는 후계자의 유일적 지배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후계자의 유일적 지배체제의 완성은 1980년 김정일의 후계자 공식화로 이어졌고 당규약 개정을 통해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²⁸⁾는 것을 천명하도록 하였다.

首領論은 1986년 수령·당·인민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이 생명체의 뇌수는 수령이 된다는 ‘사회정치

26)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2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36. 김일성은 여기에서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사상, 우리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라고 말하였다.

27) 주석제에 관한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7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3), pp. 5~6. 헌법 제89~99조 참조.

28) 1980년 당규약 전문 참조. 梁性喆, 「北韓政治研究」(서울: 博英社, 1993), p. 560.

적생명체론²⁹⁾으로 전환되면서 수령은 완전한 의미에서 神이 되었고 수령화작업도 마무리 되었다. 즉 수령은 神이 되었고 후계자는 神의 아들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체제는 수령(김일성) 없이는 存在理由가 없게될 정도로 수령의 유일적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을 통치하는 누구도 수령의 권위를 획득하지 못하면 최고통치권자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게 되었다.

2. 首領論의 概念과 首領中心的 리더쉽론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개인숭배는 물론 북한에서만 고유한 것은 아니었다. 舊蘇聯에서는 스탈린(Stalin)에 대한 個人崇拜가 있었다. 1929년 12월 「스탈린탄생 50주년」에 구소련의 모든 신문들은 스탈린에 대해 ‘위대한,’ ‘비범한,’ ‘천재적인’ 등의 수식어가 붙은 제목을 뽑았다. 1931년 1월에 소집된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모로토프와 카가노비치를 필두로 스탈린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늘어 놓았다. 이제 스탈린의 지위는 당내에서는 물론 누구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 정상에 올라 앉

29)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에서 그 개념이 도출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체계화되어진 것은 1986년 7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였다.

게 되었다. 그러나 1953년 死後 그는 흐루시초프에 의해 철저히 비판당하는 신세가 되었다.³⁰⁾ 그러나 북한에서의 金日成 偶像化政策은 스탈린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北韓에서 우상화의 극치인 수령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다 자세히 고찰해 본다. 리더란 집단을 어떤 일정한 목적을 향해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북한에서의 수령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북한에서의 首領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당과 혁명의 탁월한 영도자”이고 “근로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³¹⁾이다. 北韓은 “수령이 인민대중의 최고뇌수로 되는 것은 수령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³²⁾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더는 누구나 集團의 目標達成을 위해 리더쉽을 발휘한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할 것은 북한의 首領

30) 梁好民 外, 「共產主義 批判」(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81), pp. 159~60.

31) 김민·한봉서 공저,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9: 령도체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9.

32)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376(이하 「철학사전」으로 표기).

은 일반적인 리더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북한은 수령이 인류역사에서 가끔 찾아보는 특출한 개인과 완전히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수령은 인민대중에게 政治的 生命을 창조해 주고 그것을 끝까지 신장시켜 주기때문이라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수령이었던 김일성은 주민들의 복종을 도출해 내는 정당성의 근거로서 항일무장투쟁, 토지개혁을 비롯한 사회주의혁명, 한국전쟁에서의 ‘승리’³³⁾ 등을 내세웠다. 적어도 이것들은 북한인민들에게는 김일성을 생명의 은인으로 신봉할 만한 것들이었다.³⁴⁾ 따라서 “노동계급의 수령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확한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혁명이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내놓으며 근로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 세워 혁명투쟁으로 조직동원함으로써 혁명을 승리로 이끌”³⁵⁾어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의 지위, 인민대중속에서 차지하는 수

33) 북한은 휴전협정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승기념일’로 제정, 전야제와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함으로써 미국과의 투쟁에서의 ‘승리’를 광복절보다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4)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 (서울: 한울, 1987), p. 52.

35) 「철학사전」, p. 377.

령의 최고의 영도적 지위는 절대적이고,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³⁶⁾함으로 인민대중은 絶對性, 神聖性을 보유한 수령을 무비판적으로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처럼 首領論을 본격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過渡期論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일성은 1967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 독재 문제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 시기까지를 過渡기로 설정하고 全世界의 社會主義化가 달성될 때까지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⁷⁾ 이것은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論의 국제정세관에서 표출된 것³⁸⁾으로서 김일성 자신 및 家系偶像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은 완전한 의미에서 공산사회가 되기까지는 언제나 혁명의 시기이고 혁명을 효율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위대

36) 위의 책, p. 377.

37)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1967.5.25),” 「김일성저작집 2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271. 여기에서 김일성은 “프로레타리아독재가 과도기의 전기간에 있어야 할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과도기가 끝난 다음에도 그것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고 강조하였다.

38) 스탈린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一國社會主義論 주장의 배경은 梁好民 外, 「共產主義 批判」, pp. 134~39.

한 수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³⁹⁾ 따라서 수령은 ‘미숙한 인민’들을 위해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심화발전시켜 주어야 하는 중차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 왜냐하면 수령이 혁명의 지도사상을 옳바로 밝혀야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의 목표와 방향, 그 노선과 실천방법을 옳바로 인식하게 되고 혁명과 건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계속혁명을 위해 왜 수령을 필요로 하는가를 보다 자세히 고찰해 본다. 여기에서 繼續革命論은 1973년부터 시작된 3대혁명소조운동과 ‘70일전투’를 비롯한 각종 전투형태로 나타난다. 즉 북한은 1972년을 기해 사회주의사회가 되었지만 완전한 공산사회가 되기까지는 계속혁명을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령이 필요하며 ‘革命的 方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인민들을 끝없는 노동현장으로 내몰고, 쉴틈없이 ‘總和’하도록 독려하는 노력동원운동을 야기시켰다. 결국 인민들이 이러한 끝없는 강제노동하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화된 신념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북한지배자들은 신앙의 대상을 창조하였고 그것이 곧 主體思想과 首領이었다.⁴⁰⁾

39) 김국훈,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원칙,” 「근로자」(1970.5), pp. 39~45.

40) 이상우 교수는 북한을 神政體制로 보고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

북한은 혁명에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가하며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들이 제기되고 혁명과 건설은 미지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며 치열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선두에서 옳바로 이끄는 영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령만이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적시에 통찰하고 혁명의 각 단계, 각 시기마다 인민대중에게 옳은 革命理論과 과학적인 戰略戰術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⁴¹⁾ 이것은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日常化였다.⁴²⁾

또한 북한은 수령만이 능숙한 조직력과 혁명적 展開力, 불굴의 의지로 인민대중을 투쟁으로 옳게 조직동원하고 승리의 길로 끝까지 이끌고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수령이 없이는 아무리 창조적이고 자의식적인 근로인민대중이라

위로만 통치할 수 있으며, 당간부들은 金日成教의 사제직만 수행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李相禹, “김일성체제의 특질,” 李相禹 外, 「북한40년」(서울: 乙酉文化社, 1988), pp. 24~25.

41) 「철학사전」, p. 377.

42) 왜 카리스마의 세속화가 필요한가에 관해서는 Max Weber, “The Routinization of Charisma,” in Amitai Etzioni and Eva Etzioni-Halevy, eds., *Social Change*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3), p. 45 참조.

하더라도 정확한 판단과 실천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국가 목표인 공산사회건설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은 이제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고 만다.⁴³⁾ 이것이 곧 主體思想의 최대모순이다. 어쨌든 북한의 과도기론과 프로레타리아독재론은 김일성의 神格化와 김정일 後繼者化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최고 리더가 되기위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 미헬스(R. Michels)는 웅변, 의지력, 정열, 지력, 도덕성, 체력 등⁴⁴⁾을, 메리암(Merriam)은 사회적 감수성, 개인조종능력, 집단결합능력, 웅변능력, 정책발명능력, 용기 등⁴⁵⁾을, 라스웰(H. Lasswell)은 일에 대한 집중능력, 건강, 지식 등⁴⁶⁾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

43) 주체사상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세계의 주인은 사람이다'라는 것이다. 물론 이 때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은 아니고 근로인민대중만이 주인이 된다. 그리고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혁명을 완수해 간다. 최성준 저,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182~217.

44) Robert Michels, *Political Parties* (Glencoe: The Free Press, 1958), pp. 76~83.

45) Charles E. Merriam, *Systematic Polit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5), pp. 109~111.

46) Harold D. Lasswell, *Power and Personality* (New York: Norton,

이 북한의 首領은 일반지도자보다 훨씬 정도가 높은 리더십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북한은 수령이 갖춰야할 리더십으로 다음과 조건들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을 지니고 지칠줄 모르는 思想理論活動과 實踐活動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수령은 백과전서적인 지식과 끝없이 풍부한 혁명투쟁경험을 가져야 하며 특히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적 복무정신을 가지고 인민들과 함께 혁명의 장애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북한의 수령은 인간의 경지를 넘는다.⁴⁷⁾

북한이 무엇보다 수령을 중요시 하는 이유는 노동계급의 수령이 당대의 革命運動과 사회발전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인 後繼者問題를 완전히 해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처럼 절대적 영향력을 보유한 首領 김일성은 自然人이다. 따라서 그도 언젠가는 사망할 것이고 그에 따른 혼란은 사상을 초월할 것이다. 김일성은 정신적 지주였던 자신의 사망은 인민을 정신적 아노미(anomie) 상태로 빠뜨릴 것

1948), p. 27.

47) 「철학사전」, p. 377.

이고 이것은 국가체제의 소멸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태의 예방을 위해 조기에 ‘首領 後繼者’를 지명하였다. 김일성은 수령의 절대권을 이용하여 후계자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런’ 권력이양을 시도한 것이다.

결국 후계자는 過渡期를 끝내지 못하고 죽은 수령의 임무를 ‘대를 이어’ 완수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가 지속되는 한 수령은 필요한 것이고 제1대 수령이 없는 상황하에서는 제1대 수령에 의해 정당성을 전수받은 제2대 수령이 인민을 이끌고 革命課業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2대 수령의 정당성이 도출된다.

3. 首領 後繼者 金正日의 正當性

북한에서 최고리더로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령의 지위를 이양받아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북한이 수령지위를 이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수령은 정신적 역할을 하고 따라서 수령의 傳授는 북한인민들의 정신세계의 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精神移讓 곧 ‘신내림’은 수령 곧 김일성 자신만이 할 수 있는 ‘靈的’ 작업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수령의 지위를 이양받는 것이 제도적 최고지위를 이양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김정일이 당총비서, 국가주석 등의 지위를 점유한다고 해서 곧 수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수령은 최고뇌수로서 인민의 精神世界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주석, 당총비서 등의 지위를 점유하지 않고 수령의 지위를 점유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즉 수령권위 획득을 위해서는 제도화된 최고지위획득 또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이제 김정일은 수령의 후계자이다. 김정일이 首領 後繼者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계자로서의 '신내림'을 받았느냐의 여부를 고찰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베버는 세 가지의 정당한 지배유형을 들고 있다. 첫째는 傳統的 支配의 정당성이다. 이것은 오랜 전통이나 관습이 통치자의 지배에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경우이다. 즉 오랜 시일에 걸친 전통과 관습 때문에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국민이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전통적 정당성은 어떤 法規에 대한 국민의 복종이 아니라 傳統的 節次에 의한 국민의 복종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전통적 지배하에서는 傳統 자체가 최고의 權威이다. 결국 전통적 지배는 일상적·역사적·지속적인 것을 중시하는 인간의 심리적 속성에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封建社會의 현상이었으나 어느 시대에서나 조금씩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경시할 수만은 없는 정통성의 유형이다.

둘째는 合法的 支配의 정당성이다. 합법적 지배의 정당성은 지배자의 자질에서가 아니라 지배자의 합법적인 政權獲得 과정에서 도출된다. 즉 지배자의 등장과정 및 권력행사가 법률에 근거를 둘 때 국민은 그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된다. 현대 民主主義에서 가장 전형적인 정당성 획득양식이다.

셋째는 카리스마적 지배의 正常性이다. 이것은 통치자 개인의 초인간적·천부적 자질, 능력, 계시, 영웅성이 근거가 되어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카리스마적 지배에서는 국민이 지배자의 특수한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결정적 특징이다. 따라서 카리스마적 지배자와 그의 추종자간에는 信賴와 獻身關係가 형성된다.

베버는 위의 세 가지의 지배유형은 理想的 形態일뿐 시기와 장소에 따라 약간씩 변형된 형태로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다.⁴⁸⁾ 따라서 북한의 지배형태도 이 세 가지가 약간씩 조합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임은 당연하다.

여기에서는 베버의 傳統的 支配 유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해 본다. 전통적 지배는 기존의 질서와 지배권력이

48) Reinhard Bendix, *Max Weber*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62), p. 329; 黃山德, 「막스 베버」, p. 135.

神聖하다는 신념을 근거로 한 지배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型的 지배가 행하여지는 단체는 ‘情과 信義로 뭉쳐진 단체’
 이다. 전통적 지배에 있어서는 명령하는 자는 首長이나 主人
 이 되고 복종하는 자들은 臣民, 百姓이 되며 그리고 행정간
 부는 臣僚가 된다. 그런데 전통적 지배의 순수형은 家父長制
 이다. 가부장제란 가족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는 효성 즉, 피
 에 대한 복종을 미덕으로 삼는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명령
 자의 인격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의 태도를 가장 중시한다.

또한 가부장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명령자와 복종
 자 사이에 主從關係는 성립되어 있지 않고 그들은 다같은 同
 僚이고 首長은 다만 同輩 중에서 首席인 자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만 지배권을 가지는 경우인데 베버는 이것을 제1차적
 가부장제라고 불렀다. 둘째는 家産制(patrimonialism)이고 이
 것은 신분적 가산제와 家産官僚制로 나뉜다.⁴⁹⁾ 북한의 경우,
 가부장제 중 家産制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산
 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군주의 국가에 대한 개인재산화
 가 북한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가산제의 특징은 첫째, 수
 장의 명령권 내지 지배권은 수장의 강대한 私權이 되고 있

49)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박성환, “한국의 가산제 지배구조와
 그 문화적 의미,” 유석춘 편, 「막스 베버와 동양사회」 (서울:
 나남, 1992), pp. 359~88과 Bendix, *Max Weber*, pp. 334~60 참
 조.

다. 둘째, 가산제는 반드시 관리간부가 필요한데, 인적 기구로는 군대나 무신이 중요시되고 물질 수단은 수장이 전부 전유한다. 가산제하의 관료는 크게 가산관료제와 신분적 가산제로 대별되는데 북한은 가산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家産官僚制 즉 家父長的 家産制國家라 볼 수 있다.⁵⁰⁾

한편 대체로 전통적 지배가 행사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후계자를 내정하고 後繼修業을 진행해 왔다. 이것은 世襲王制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현재 북한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60년대부터 세습을 비밀리에 준비하다가⁵¹⁾ 1974년 김정일을 당내에서 후계자로 내정하였고 1980년에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즉 김일성은 세습왕으로 김정일을 지명하였고 이것은 북한체제가 ‘金氏王朝’ 체제로 변하였음을 의미

50) 자세한 내용은 黃山德, 「막스 베버」, pp. 142~80 참조.

51) 북한의 선전자료들은 김정일이 이미 1960년대 초 김일성대학 재학시절부터 후계자로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일성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암시를 1967년부터 시작하고 있다. 즉 김일성은 만경대혁명학원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혁명가유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뜻을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하겠습니다”고 강조하였다. 물론 이것은 김일성이 1947년에 이미 발언한 바 있었지만 이것을 재차 강조한 것은 후계구도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일성, “혁명가유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뜻을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1967.10.11),” 「김일성저작집 21」, p. 421.

한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당내에서 後繼者로 공식화된 후 지위를 공고화하기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⁵²⁾을 재강조, 首領에 대한 ‘대를 이은’ 충성

52) 「10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③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④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워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나가야 한다.”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1974.4.14),”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101~24.

그런데 이 「10대원칙」은 이미 김영주가 조직비서시절에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중앙일보사, 「金正日」, p. 96. 이와 관련 김정일은 1974년 2월 19일 문건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에서 “최근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수립을 위한 10대원칙이라는 말도 점

을 강요하였다.

그렇다면 ‘대를 잇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김일성은 1986년 “노동계급의 당은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며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인민의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워야 합니다”⁵³⁾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품격과 자질이란 사상, 정신, 도덕적 풍모와 소질, 능력 등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특징을 말한다. 즉 북한은 首領 後繼者의 품격과 자질로서 첫째, 후계자는 수령을 마음 속으로부터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바치는 끝없이 깨끗하고 뜨거운 사상감정을 지녀야 한다. 둘째, 수령의 후계자는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뛰어난 영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지녀야 한다. 셋째, 후계자는 충실성과 예지, 영도력과 덕성을 그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완벽하게 지녀야 하며 이러한 품격과 자질을 빠짐없이 완전히 겸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⁴⁾ 따라서 만일 어떤 후계자가 수령의 지위와 역

점 자취를 감추게 되고”라며 「10대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음을 개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0대원칙」은 이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2.19),”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13.

53)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7」 (평양:조선중앙통신사, 1987), p. 64.

할을 계승한다면 그 후계자는 그 지위와 역할에서 본질상 수령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⁵⁴⁾

그러나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실제적 이유는 위와 같은 능력의 소유라기 보다는 傳統的 支配 方法에 따라 절대권자 김일성의 長子라는 점이다.

한편 북한은 후계자 문제의 要諦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⁵⁵⁾ 즉 첫째, 후계자는 전민중적 추대에 기초해서 선출해야 하며, 둘째, 새세대의 인물을 선출해야 하며, 셋째, 수령생존시에 선출해야 한다 등이다. 따라서 탁월한 자질을 갖춘 수령의 후계자는 자기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민족의 번영과 민중의 행복을 보장하는 사상정신적, 물질문화적 재산으로 될 훌륭한 업적을 쌓아 올리고 그것으로하여 민중 속에서 공인된 지도자로 추대되게 된다. 북한은 金正日이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보유했기 때문에 後繼者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김정일 후계자 옹립에 대한 민중의 절절한 염원은 전국 각지로부터 매일같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쇄도하는 편지, 청원서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든 김정일은 마

54)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출판사미상, 1989), p. 36.

55) 북한은 “우리의 수령님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이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중앙방송」, 1994.8.8.

56)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pp. 45~52.

침내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 비서로, 1974년 2월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사실상의 首領後繼者가 되었다.⁵⁷⁾ 이후 김정일은 首領後繼者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결과 수령 칭호를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다.⁵⁸⁾ 결국 김정일은 북한의 權力移讓 방식에 의해 김

57) 제8차 전원회의는 원래 사회주의 대건설방침을 토의한 회의였는데 기본문제에 대한 토의가 끝나자 항일빨치산출신의 한 원로정치인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다른 문제를 하나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김정일비서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하자고 하였다는 것이다. 해방前 김일성과 항일운동을 하였고 해방 後에는 김일성과 建黨, 建國, 建軍의 사업에서 투쟁했던 老戰士들이 김일성의 수고를 덜어주고 김일성의 위업을 계승할 자를 모색중 탁월한 자질과 고상한 품모, 인민의 열망을 갖춘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제의가 회의참가자들의 전원찬동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김정일은 혁명 1세대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전적인 지지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주장이다.

58) 그에 대한 호칭은 ‘존경하고 경애하는 지도자(1973),’ ‘위대한 김일성주의자(1975),’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는 향도의 별(1976),’ ‘공산주의 미래의 태양(1977),’ ‘인류가 낳은 걸출한 영웅(1978~79),’ ‘은혜로운 햇빛(1980),’ ‘미래의 수령, 탁월한 사상이론가(1981),’ ‘친애하는 지도자(1982),’ ‘영명한 지도자, 민족의 아버지(1983),’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1984),’ ‘창조와 건설의 영재(1985),’ ‘전지전능한 지도자(1986),’ ‘시대가 회구하는 세계의 향도자(1987),’ ‘김정일각하(1988),’ ‘인민의 아버지(1989),’ ‘위대한 지도자(1990),’ ‘또 하나의 수령(1991),’ ‘당

일성으로부터 수령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고 북한인민을 통치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로의 세습을 인민들은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수령계승이 人民的 水準에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느냐는 문제는 인민들의 政治文化 水準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인민들의 정치문화 수준이 저급할수록 傳統的 支配는 더욱 정당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인민들의 정치문화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그에 따른 북한인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정당성 인정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물론 이를 판단할 만한 정확한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간접 증명방법으로 歸順者들의 증언을 동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귀순자들의 의견도 직업, 성별, 계층, 시기, 귀순동기 등에 따라 상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귀순자나 북한방문자들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보려 한다.⁵⁹⁾

과 국가와 군대의 수위(1992),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1993), '우리당과 인민의 영명한 수령(1994)' 등으로 변해 왔다. 김정일의 수령화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통일원, 「김정일우상화사례집」(서울: 통일원, 1992) 참조.

59)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귀순자들과의 대담내용은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이 1994년 3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실시한 것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실에 비치된 자료를 참조할 것.

북한인민들의 정치행위는 다만 동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체제나 정권유지에 필요한 정치적 행사에만 동원되어 脚本에 의한 행동만 연출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인민 누구도 自意的으로 정치적 관심자가 될 수는 없다. 특히 북한인민들은 김일성을 절대자 내지는 초월자로 인식하고 있고 김일성의 지위나 그의 행위는 일반인들로서는 할 수 없는 至高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⁶⁰⁾

김정일로의 승계문제도 일반주민들은 家産이 長子에게 물려지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즉 국가전체가 하나의 가정이고 家長은 김일성, 長子是 김정일로 인식하고 설령 김정일이 김일성만큼은 특출한 능력이 없더라도 그가 정신적·육체적 불구자가 아닌 한은 어쩔수 없다는 자포자기적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⁶¹⁾

결국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권력이양은 傳統的 方式의 정당성획득 양식을 나타내고 있고 북한인민들의 臣民的 政治文化는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시켜주는 토대가 되고 있다. 물론 시간의 흐름과 외부정보유입 증가로 북한인민

60) 귀순자 남명철 씨의 증언, 1994.3.15.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 존경심은 적으나 세습제에 대해서는 당연시한다고 함.

61) 이운죽, “북한소설에 나타난 사회적 가치관과 인간관계유형분석,” 국토통일원, 「북한사회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166.

들의 自意識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김정일의 정당성을 훼손할만큼 강한 것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前近代的인 요소인 인정, 의리, 연고, 예절 등을 주요 덕목으로 삼고 있는 북한인민들이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있는 김정일에 挑戰하는 행위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⁶²⁾ 즉 世襲制度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인민들은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령’ 김정일이 건재함으로써 국가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精神的 安定을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³⁾

62) 朴奎植, 「김정일평전」 (서울: 陽文閣, 1992), pp. 168~69. 물론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 김정일에 대한 북한인민들의 평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1973년 김정일이 등장한 이후부터 북한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둘째, 김정일의 성격이 대정치가답지 못하다는 점 등 때문이다.

63) 재미 언론인 문명자 씨의 증언, 「말」 (1994.9), p. 41.

第Ⅲ章 統制機構 掌握과 金正日 리더쉽

북한은 당, 국가, 사회 중 당이 全權을 장악하여 국가와 사회를 운영해 가는 黨優位國家로서 당권을 장악하지 않으면 최고리더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수도 없는 국가이다. 즉 북한 내에서 조선노동당의 지위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1992년 개정헌법 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⁶⁴⁾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조선로동당의 령도’란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조선노동당은 수령 김일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당의 영도는 수령 김일성의 영도를 의미한다. 물론 현재는 수령의 후계자인 ‘金正日의 領導’를 의미한다.⁶⁵⁾

이처럼 수령의 私黨으로서 無所不爲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을 장악하지 않고는 누구도 최고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대학 졸업 후 당관료로서 후계수업을 시작하였고 1974년 당내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에는 수령의 유일지도체계 확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강화와 이를 통한 黨·政·軍 관료들의 장악에 착수하였다.

64) 1992년 개정헌법 제11조 참조; 梁性喆, 「北韓政治研究」, p. 508.

65) 「북한중앙방송」, 1994.8.8.

黨은 정치국과 비서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나 실질적 의미에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비서국이 최고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고⁶⁶⁾ 그 중에서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가장 중요한 專門部署이다.⁶⁷⁾ 후계자인 김정일이 조직지도부장을 직접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 부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조직지도부는 김일성·김정일을 제외한 모든 당기구와 관료들을 통제해 왔다. 즉 조직지도부는 정치국과 비서국은 물론 軍部, 行政部 등을 예외없이 감시·통제하여 왔다.⁶⁸⁾

따라서 조선노동당은 스탈린 시대의 共產黨⁶⁹⁾보다 더 통제

66) 당규약 제26조에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필요시, 당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를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비서국은 당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관료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67) 김정일은 “조직부는 조직권을 틀어쥐고있는 당의 심장부서입니다. 조직부는 어디까지나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고 사업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여 조직부의 기능이 당을 통제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김정일, “현시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5.6.1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354.

68) 조직지도부는 당권력서열까지 정하는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서는 행사의 성격 즉, 주관부처가 당이나, 군부·행정부냐에 따라 서열을 정한다.

69) 스탈린의 당이론에 대해서는 李容弼, 「共產主義理論批判」(서울: 大旺社, 1982), pp. 236~38 참조.

적이고 위압적이다. 특히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이 두 부서는 체제 및 권력유지를 위한 中樞的 役割을 담당하여 왔다. 김정일은 그동안 조직지도부를 통해 당·정·군 엘리트 및 인민들의 身體的 統制를, 선전선동부를 통해 이들의 精神的 統制를 가함으로써 후계자 지위를 공고히해 왔다.

스카치폴(T. Skocpol)은 構造主義的 입장에서 국가중심적 국가의 개념을 논하고 있다. 즉 그는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국제적인 정치·경제체제의 압력 아래에서 이에 대응하는 농촌공동체, 국가구조, 엘리트조직의 형태에 따라 혁명의 성패가 판가름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국가가 정통성을 상실한 후에도 강제적 조직이 여전히 일관성 있게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국가는 계속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대중을 기반으로 한 內部蜂起에도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녀는 강제적 조직의 구조, 국가 기구 내에서의 강제적 조직의 위치, 강제적 조직과 계급세력 및 정치적으로 동원된 집단과의 관련 등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혁명상황에 처하여 있는 국가를 분석하는 데에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하였다.⁷⁰⁾ 스카치폴은 한 국가의 안정적 유지에는 強制機構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학자라 할 수 있다.

70) Theda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 32.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강제기구인 군부,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호위총국 등에 대한 綜合的 統制를 수행하고 있음으로 인해 사실상 최고강제기구인 당조직지도부 및 선전선동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김정일의 強制機構掌握 여부를 분석해 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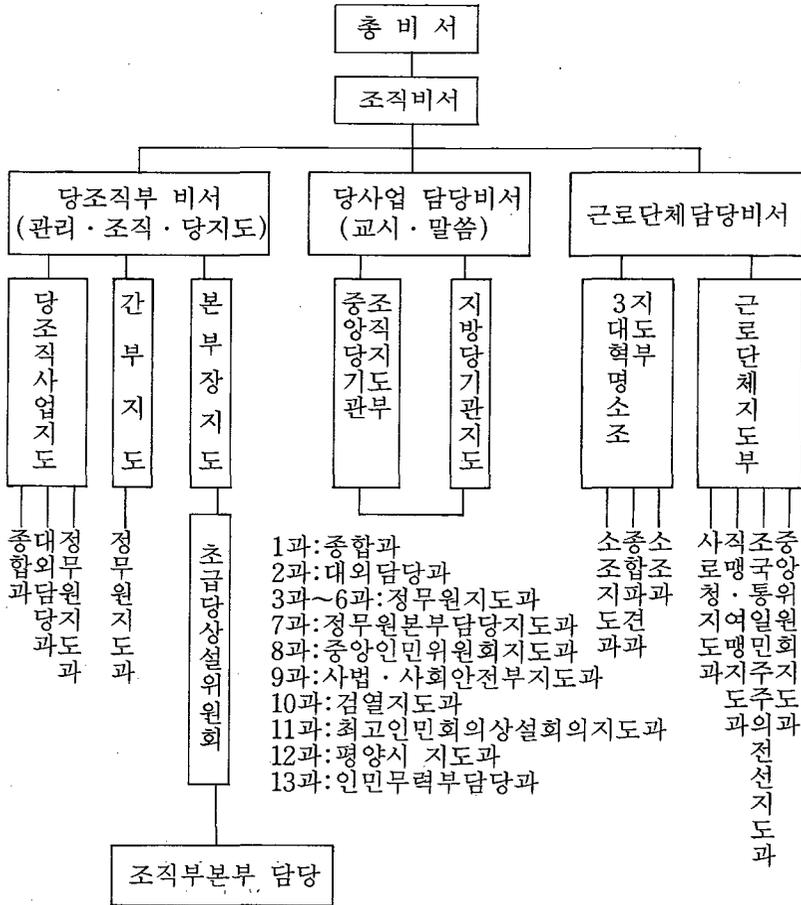
1. 組織指導部를 통한 官僚들의 統制

현재 조선노동당의 조직지도부는 <표 1>⁷¹⁾처럼 조직되어 있다.

당조직지도부는 당중앙위 最高實務指導機構로서 실질적인 당 조직, 정치사업의 총참모부이다. 조직지도부는 金父子 唯一支配體制의 직접담당기관으로서 이 기구의 지시에 의해 黨中央委가 움직이고 북한체제가 작동되어 왔다. 당중앙위 정치국은 명목상 당최고기구일 뿐 당정책입안에는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치국은 상징기구이고 비서국 내의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당총비서 바로 밑에 조직비서와 선전선동비서가 있고 그 아래로 각 부문담당비서들이 포진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비서와 선전선동비서와 각 부문담당비서간의 권력차는

71) 북한 사회안전부 대양무역회사 사장으로 재임중 망명한 김정민 씨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함.

<표 1> 조직지도부 조직표



실제에 있어서 1계급차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조직비서는 후계자이며 ‘準首領’인 김정일이 직접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지위이기 때문이다.⁷²⁾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권한은 매우 막강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3과까지 나뉘져 있고 각 과가 국가의 주요 부서를 맡아 감시·통제·인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9, 10, 13과는 폭압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검열기구, 군 등을 감시통제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⁷³⁾ 이들의 報告體系는 '3선(당조직계통, 행정계통, 보위부계통)·3일 보고·통보체계'와 '김정일직보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군대의 「3선·3일 통보체계」는 당조직계통(정치부)·참모부계통·군대보위부계통이다. 즉 全黨·全國·全軍의 모든 단위와 부문의 기관·기업소들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들은 조직비서인 김정일에게 집중보고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⁷⁴⁾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비서가 된 이후 그의 유일지도체제 확립에 부심하였다. 김정일은 1967년부터 추진해 왔던 '유일사상체계확립'이 어느 정도 달성되자⁷⁵⁾ 1973년부터 1974년 사이에 '유일지도체제확립'을 위해

72) 김정민 씨의 증언, 1994.8.15.

73) 조직지도부의 위력에 대해서는 수많은 귀순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74) 申敬完, "金正日體制의 強點과 弱點 그리고 人民抗拒," 「月刊中央」(1991.7), p. 442.

75) 북한은 1972년 헌법개정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4조)"고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주체사상이 유일 지배이데올로기

총력을 기울였다. 김정일은 모든 문건이 하급기관으로 하달되기 전에 자신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⁷⁶⁾ 그리고 그는 1974년 4월 당원들에게만 배포된 비밀문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발표, 형식적이었던 唯一指導體制를 보다 확고히 하였다. 이 문건은 매우 역사적인 것으로서 김정일 후계자문제가 명시된 최초의 것이었다.⁷⁷⁾ 이후 김정일은 1974년 10월 비밀리에 개최된 당 제5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唯一指導體制 확립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정치위원 겸 조직 사상담당 비서로서 비밀보고를 하였다. 김정일은 보고를 통해 첫째,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의 전당적 실천, 둘째, 당내부사업지도서 작성, 셋째, 당조직·기구의 부서 및 직능의 조정 등 3대과업을 내놓았다.⁷⁸⁾

임을 분명히 하였다.

76)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아래당조직들에 내려보내는 지도서와 지시는 반드시 위대한 수령님과 나의 비준을 받은 다음에 내려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수령님과 나의 승인이 없이는 어떠한 문건도 아래에 마음대로 내려보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고 강조함으로써 김일성 결재 이전에 자신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당사업 통제를 본격화하였다.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2.2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p. 60~61.

77) 「10대원칙」 제10항 참조. 「10대원칙」은 註) 52 참조.

78) 中央日報社, 「金正日」(서울: 中央日報社, 1994), p. 94.

김정일은 김일성 유일지도체제 확립을 전당·전군·전국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천해 갔다. 우선 당의 전당조직 내에 유일지도체제를 확고히 한 이후 군대에 대한 유일지도체제를 세웠고 뒤이어 정권·행정·경제 등 부문과 대외·대남부문에 유일지도체제를 세우는 단계와 과정을 거침으로써 전당·전군·전국적으로 唯一指導體制를 확립하였다.

유일지도체제 확립의 첫 단계와 과정이 되는 당조직정비는 1973년 9월부터 1974년 중반까지, 군대 내부에 대해서는 1974년 후반부터 1975년 중반까지, 그 이후 1976년 중반까지는 정권·행정·경제·교육·과학부문과 대외·대남부문에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였다.

김정일이 김일성 유일지도체제 확립에서 기본 중심문제로 제기한 것은 우선 당조직기구 체계의 개편과 함께 당사업에서 기본핵으로 되는 당·군·국가 간부사업체제를 재정비·수립하는 문제, 당사업지도검열체계의 정비, 당간부대열의 정화, 지도이론과 방침·방식의 침투, 간부·당원들의 당조직생활과 그의 지도체계의 정비강화, 당홍보사업체계의 정비수립 문제 등이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金正日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점은 방대한 조직을 어떻게 一元化하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하느냐는 문제였다. 따라서 김정일이 당내 唯一指導體制 確立問題에 접근함에 있어 최우선과제는 당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위

시한 당조직기구들을 상황에 맞춰 정비·개편하고 간부사업 체계를 정비·보강하는 것이었다.⁷⁹⁾ 즉 그는 당사업의 기본핵심이 되고 있는 黨·軍·政 간부의 選拔基準 및 임명과 노동해임·양성훈련의 절차와 질서문제 등을 규정한 것을 기본내용으로 간부사업을 실시하는 데 우선적 관심을 집중하였다.⁸⁰⁾

우선 당조직지도부가 당·정·군 전반에 걸친 간부문제를 총괄적으로 장악·관장할 수 있도록 조직지도부의 기구를 개편하고 간부사업체계를 세우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종래에는 간부문제를 黨幹部部의 지도하에 각 부서별, 기관별로 분산 취급하고 있던 것을 조직지도부가 직접 총괄적으로 장악·관장할 수 있도록 기구를 신설했다. 즉 김정일은 모든 간부문제를 조직지도부에 집중시키고 조직지도부장 겸 조직비서인 자신의 직접적인 지도·통제하에 幹部事業이 진행되도록 하는 幹部事業體系를 확립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간부의 선발임명의 기준과 절차, 간부의 승진, 노동해임, 교육훈련의

79)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에서는 앞으로 도, 시, 군 당기구를 한 20~30% 정도 줄여 생산단위의 초급당을 강화할데 대하여 연구해보아야 하겠습니까”라고 강조하고 당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김정일,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1976.2.6),”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452.

80) 이 내용은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2.28),”에서 추출하였음.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간부사업 지도서를 직접 만들어서 그대로 실행하도록 했다. 당내 경제 부서를 제외한 부서에는 幹部課를 신설하고 조직지도부 해당 간부담당과와 협동하에 산하 경제·교육·과학·문화·예술·언론·보도·출판 부문의 간부문제를 사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임명결정권은 조직비서에게 집중시켰다.⁸¹⁾

이때 간부로서 충원요건은 충성심이었다. 김정일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조금이라도 결여된 사람은 간부로 될 자격이 없습니다”⁸²⁾라고 말하여 충성심이 제1요건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가 體制管理期에 들어가면 黨性이나 忠誠心이 아닌 專門性에 의해 관료들이 충원된다는 가설은 북한에는 맞지 않는다.⁸³⁾ 오늘날 북한의 관

81) 申敬完, “金正日體制的 強點과 弱點 그리고 人民抗拒,” pp. 439~40.

82) 김정일, “은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2.1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54; 김정일, “현시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349.

83) 田溶憲, “北韓政治體制的 變化에 關한 研究”(高麗大學校大學院 政治外交學科 博士學位論文, 1991.6), p. 210. 전용헌은 여기에서 북한의 체제관리를 1970.10~1980.10까지로 잡고 있다. 한편 도홍렬 교수는 북한이 향후에는 黨性和 專門性을 겸비한 ‘二重官僚’를 충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都興烈, “엘리트 形成과 循環,” 도홍렬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 246.

료들은 김정일에 대한 철저한 충성과들로서 黨·政·軍에 걸쳐 중첩적으로 지위를 보유하여 김정일 체제를 支撐하고 있다.⁸⁴⁾

당조직지도부는 유일지도체제 확립과정에서 철저한 탄압을 가하였다. 특히 김정일에게 반대하는 親·姻戚들에 대한 탄압은 가혹한 것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처 김성애와 삼촌 김영주를 권력 전면에서 퇴장시켰다. 그는 김성애를 퇴진시키기 위해 「평양시당」과 「중앙여맹」에 조직지도부 및 호위국 검열원을 파견하여 김성애 측근의 越權行爲를 철저히 파악, 김일성에게 보고해 그녀를 몰락시켰다.⁸⁵⁾ 이외에도 간부와 인민들에 대한 탄압은 매우 가혹하게 진행되었고 수많은 被壓迫民들이 발생하였다.⁸⁶⁾

84) 자세한 내용은 全賢俊 外,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참조.

85) 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20여명의 검열원들이 1973년 말부터 약 5개월 동안 해군사령부 정치위원인 김성갑(김성애의 친동생)의 평양시 당시절의 비리를 쫓다. 또한 여맹사업을 검열해 김성애의 측근들의 비행을 쫓다. 그 내용을 보고받은 김일성은 즉시 평양시 당전원회의를 소집했고, 즉석에서 김성갑과 김성호(황해북도 당비서)를 비판했다. 평양시 당전원회의와 「여맹」전원회의를 통해 김성애 측근들은 철직되었고, 김성애의 「여맹」위원장 지위는 유지되었으나 이후 일체의 공식 활동은 중지되었다. 中央日報社, 「金正日」, pp. 100~01. 그러나 이들은 1994년에 復權되었다.

86) 북한은 1972년부터 당증재교부사업을 벌여 10만명 이상의 당

한편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사업에서는 非妥協的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로 공포분위기였다.⁸⁷⁾ 이와 함께 조직지도부의 임무를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직지도부의 임무는 첫째, 지방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사업의 강화, 둘째, 중앙기관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 및 간부사업에 대한 역점, 셋째,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재토의사업 등이 다.⁸⁸⁾

여기에서 「10대원칙재토의사업」이라는 것은 黨의 각 세포 별로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의 1개조항씩을 학습하면서 개인별로 입당 이후 현재까지 당생활을 해온 자신의 행적을 그 조항과 연결시켜 반성하고 일종의 ‘告解聖事’인 自我批判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10대원칙재토의사업」은

원을 축출하였으나 이후에도 당원들에 대한 충성심 심의는 계속되었다. 北韓研究所 編, 「北韓總覽」(서울: 北韓研究所, 1983), p. 313. 현재 북한의 계층분포는 핵심계층 약 25%, 동요계층 약 55%, 적대계층 약 2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 인권의 虛와 實」(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3), pp. 26~31.

87) 김정일은 “무엇보다도 조직지도부일군들은 계급적 낱을 날카롭게 세우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지도체계에 어긋나는 자그마한 현상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하겠습니까. 조직지도부는 어느 부서보다도 계급적 낱을 날카롭게 세워야 합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 “당사상사업에서 낱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테 대하여(1974.2.2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67.

88) 위의 책, pp. 73~74.

세포에 따라서는 2~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해야만 10개항에 대한 반성을 마칠 수 있었다. 이 「10대원칙」은 북한판 ‘十誡命’으로서 당중앙은 自意的 판단에 의해 수많은 당 관료와 당원들을 철직하거나 산간벽지로 強制移住시켰다. 결국 「10대원칙재토의사업」은 김정일 후계체제에 승복하지 않는 舊黨員들에 대한 숙청의 도구였다.⁸⁹⁾

또한 김정일은 후계자로 책봉된 이후 무엇보다 우선해서 일반인민들을 지도해 가는 간부들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總和制度’⁹⁰⁾를 강화하였다. 「10대원칙재토의사업」도 총화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총화제도를 강화한 이유는 그동안 당간부들의 나태와 무식, 형식주의 등에 대해 심한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었다.⁹¹⁾ 아울러 김정일은 당원들

89) 北韓研究所 編, 「北韓總覽」, p. 315.

90) 총화제도란 일종의 반성회로서 총화기간 즉, 1일, 2일, 3일, 1주일, 1개월, 1년 등 일정기간 내에 처리한 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 是是非非를 가려 상호비판하고 반성하는 제도이다.

91) 김정일은 “지난 시기 우리 당조직들은 간부들과의 사업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간부들과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결함은 간부들을 조직적으로 엮어매놓고 일상적으로 장악통제하면서 실속있게 도와줄데 대한 당의 요구를 옳게 관철하지 못한것입니다. … 무엇보다도 간부들의 학습과 당생활을 강하게 통제하며 그들에 대한 개별교양체계를 옳게 세워야 합니다.”고 말하였다. 김정일,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울데 대하여(1973.8.2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 (평양:

이 당생활강화와 혁명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을 組織思想的으로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방법으로서 黨生活總和制度 개선을 내세웠다. 그 이유는 첫째, 김정일은 1956~1958년 사이에 청산된 것으로 알았던 ‘反黨反革命宗派分子’들이 잔존해 있음을 파악하였고, 둘째, 그는 당생활총화도 사전준비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앉아 자기업무에 대해서 형식적인 ‘총화’만 반복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김정일은 실질적인 권력의 2인자가 되자 黨整備에 착수하였다. 그는 당원들의 나태를 추방하기 위해 일체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철저한 ‘總和’계획을 수립하였다. 김정일은 당원들의 당생활 강화를 위해 새로운 ‘2일 및 주 당생활총화제도’를 만들었다. 그는 우선적으로 문학예술부문 당조직들에 대해 이것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문학예술부문 일꾼들이 인텔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넓은 사상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당시만해도 일반인민들의 文盲率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부문 종사자들의 學歷水準은 높았다. 따라서 이들은 불평불만이 많았고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그들의 작품 속에도 그대로 형상화되었다. 즉

金正日의 판단대로 문학예술부문에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 ‘부르조아분자,’ ‘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⁹²⁾

金正日是 새로운 제도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는 당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결함을 제때에 고쳐주어 그들이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계속 지켜나가게 하며 당안에 비판과 사상투쟁의 분위기를 세워 건전한 당생활기풍을 확립할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당생활총화제도입니다”⁹³⁾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 첫째, 간부들과 당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양성할 수 있고, 둘째, 당조직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게 하여 당내에서 지방주의, 가족주의, 자유주의를 비롯한 제반 불건전한 사상요소를 극복할 수 있으며, 셋째, 당이 설정한 혁명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넷째, 당조직들이 필요한 조직적 대책을 제때에 세워나

92) 김정일은 “반당종파분자들은 작가들로하여금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고 자기 집에 들어박혀 글을 쓰게 한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가들속에 자유주의를 조장시키고 그들을 현실에서 유리시켜 옳은 글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음흉한 작간이였습니다.”고 말하였다. 김정일,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1974.12.6),”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283.

93) 김정일,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울데 대하여(1973. 8.2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 p. 451.

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⁹⁴⁾

總和의 엄격성은 다음 지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김정일은 첫째, 학습총화를 할때는 반드시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둘째, 학습총화에서는 형식주의를 배격할 것, 셋째, 학습총화는 필답방법과 문답식으로 하고 반드시 시험을 치루어야 하고 출장을 구실로 학습총화에 빠진 사람들은 현지에 따라가서라도 받아야함 등이다.⁹⁵⁾ 이것이 특히 나이든 간부들에게는 얼마나 가혹한 것이었는가는 김영성 씨의 증언에서도 잘 나타난다.⁹⁶⁾

이러한 組織生活의 결과에 대해 김정일은 당원들이 첫째,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하는 혁명적 기풍과 집단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생활기풍이 생겼고, 둘째, 문학예술분야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며 모든 문제를 당조직을 통해 해결해 가는 기풍이 생겼으며, 셋째, 사업상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까지 당조직에 보고하여 해결하였고, 넷째, 문학예술분야 간부들과 당원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주

94) 위의 책, pp. 452~53.

95) 김정일,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73.11.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 p. 478.

96) 귀순자 김영성 씨는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총화가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증언함. 1994.3.9.

인다운 태도와 책임성이 높아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양되어 지난 1년 남짓한 기간에 4대혁명가극을 창조하였다⁹⁷⁾고 평가하였다.

결국 이것은 당원들이 일체의 自由裁量을 상실하고 심지어 私生活까지 당에 보고하고 당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유래를 찾을 수 없는 獨裁國家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원들의 被動性은 더욱 확대되었고 자발성과 창발성은 매우 위축되었다. 金正日 등장 이후로 생산성이 저하되었다는 귀순자들의 증언은 이를 뒷바침해준다.⁹⁸⁾

한편 김정일은 당원들의 감시감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당세포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그는 당세포들을 충성심으로 튼튼히 무장된 당원들로 충원하였고, 이들을 黨員들의 先鋒에 내세웠다. 그는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포를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하고 실정에 맞게 세포를 축소하거나 확장”하도록 하였다. 그는 세포의 종류에 맞게 2일당생활총화, 3일당생활총화, 10일당생활총화를 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김정일은 당세포비서들이 당원들을 엄격하고 철저히 통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97) 김정일,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울데 대하여(1973. 8.2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 p. 455.

98) 대부분의 귀순자들은 1974년 김정일이 등장한 이후 북한경제가 낙후되기 시작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음.

즉 그는 첫째, 당세포비서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기층당조직의 책임자로서 세포비서들은 黨生活總和를 제정된 날짜와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어김없이 진행하는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생활총화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초급당조직들은 당생활총화에 대한 지도를 세포비서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정형과 당생활총화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당생활총화에서 나타나는 偏向을 제때에 바로잡아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⁹⁹⁾

결국 오늘날 조직지도부는 수령을 제외한 모든 黨·政·軍·人民의 一舉手一投足を ‘총화’를 통해 감시·통제하는 超越的 地位를 확보하고 있다. 물론 이 기구는 김정일이 직접 관장하고 있고 그는 이를 통해 국가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통치권자가 된 이후에는 그가 가장 신임하는 親·姻戚에게 이 자리를 승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직책은 김정일 이후의 승계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조직지도부는 김정일 忠誠派들로만 구성된 김정일 리더쉽 공고화를 위한 最尖兵이고 관료, 당원, 인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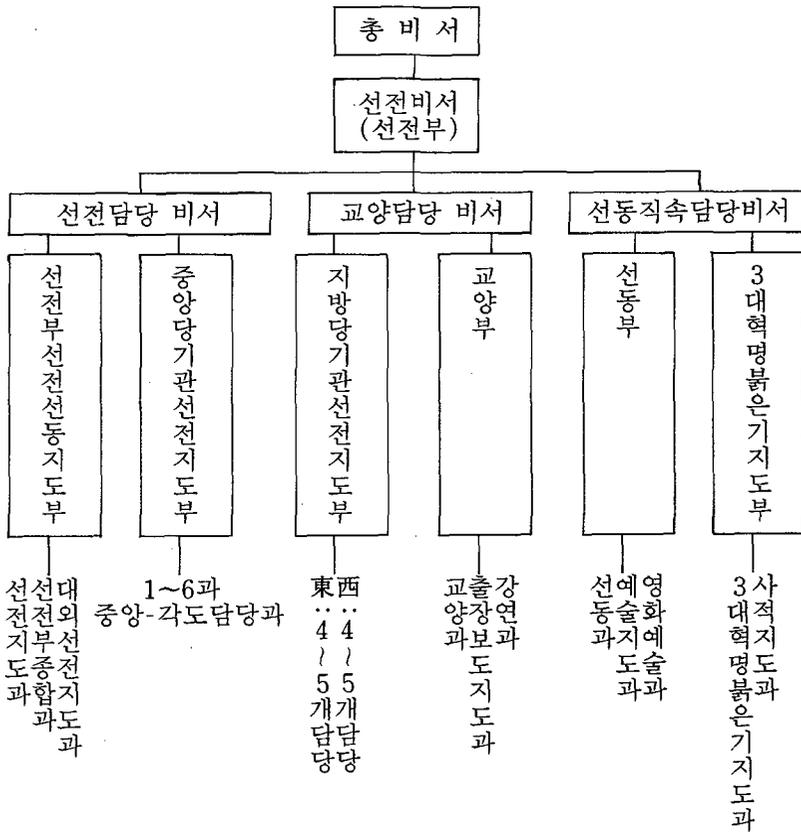
99) 김정일,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울데 대하여(1973. 8.2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 pp. 456~57.

2. 宣傳煽動部를 통한 官僚와 人民의 統制

선전선동부는 <표 2>¹⁰⁰처럼 조직화되어 있다.

선전선동부는 조직지도부와 함께 당기구 중 가장 중요한

<표 2> 선전선동부 조직표



100) 김정민 씨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함.

부서이다. 선전선동부의 임무는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¹⁰¹⁾하는 것이다. 金日成主義化를 위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군중을 동원하고 ‘온 사회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등을 연구하는 것이 이 부서의 임무이다. 즉 인민들의 사상개조와 인적 동원이 주임무이다. 김정일은 수령 김일성이 간부들에게 한 ‘敎示’가 잘 전달·침투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특히 지방지도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⁰²⁾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지방지도과 책임지도원들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책임지도원들은 한 달 중 20일은 지방에서, 10일은 중앙에서 재무장, 재작전하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책임지도원들을 통하여 파악된 하급당조직들의 실태와 각 부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당중앙에 보고하고 당의 결론에 따라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체계적인 사업체계를 세워야 한다¹⁰³⁾ 등이다.

김정일이 이러한 지시를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 지

101) 김정일,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73.11.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 p. 468.

102) 위의 책, p. 486.

103)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2.2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60.

방의 하급당조직들은 당중앙의 의도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실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당사업을 형식적으로만 수행했다. 물론 이것은 사회주의의 가장 큰 맹점으로서 북한만의 고유한 현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形式主義, 官僚主義와 地方主義가 사회 각 방면에 퍼져 있었다. 김정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선전선동부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전선동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였다.

첫째, 간부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해 통보강연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보강연사업은 중앙기관지도과와 강연과, 교양과들이 최신 자료를 適時에 각 기관에 통보하여 간부강연체계를 통해 실정에 맞게 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민들에 대한 사상사업 수단으로서 방송을 이용하는 방법을 강조하였다. 김정일은 전국의 유선방송화를 실현하여 방송선전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즉 김정일은 방송선전사업을 통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사회주의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이 有線放送化를 강조한 이유는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放送機를 제각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방송기의 조작 여부에 따라서는 체제비판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특히 텔레비존 수상기 배정사업의 정확성에 대한 강조는 매우 흥미롭다. 즉 텔레비존 수상기는 중요한 宣傳手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업부에서 商品化함으로써 배분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균형된 선전효과를 일으키지 못한데 대해서 김정일은 강하게 비판하였다. 결국 텔레비존 분배까지 선전선동부가 담당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셋째,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에서 속보나 벽보를 붙이는 것이 자체방송보다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혁신자들의 사진을 붙이면 더욱 나올 것이라는 ‘교시’는 아연할 정도이다.¹⁰⁴⁾

한편 김정일은 당의 문제점을 첫째, 당사업의 행정화에 두고 있었다. 그는 당이 行政經濟事業을 대행할 것이 아니라 당적 영도를 강화하여 당의 권위를 높이도록 지시하였다. 그는 당간부들이 행정까지 간섭하게 되면 당의 권위를 높일 수 없고 행정경제간부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이 하락한다고 우려하였다.

둘째, 선전선동간부들의 形式主義的 事業方法을 지적하였다. 김정일은 선전선동부 간부들이 임무에 대한 깊은 연구

104) 김정일,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73.11.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 pp. 472~76.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당사상사업이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였다. 그는 당사업에서 行政代行과 形式主義가 얼마나 많은 폐해가 발생하는가를 간부들이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⁰⁵⁾

따라서 그는 당간부의 무식을 개탄하면서 우수한 간부들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김정일은 “동무들가운데는 지난날 세포비서나 부문당비서, 초급당비서를 거쳐 체계적으로 당사업을 해본 동무들도 얼마 없습니다. 동무들이 가지고 있는 당사업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은 다 지난날 낡은 쭉대밭에서 당사업을 하면서 얻은것들입니다. … 도당책임비서들 가운데는 글을 변변히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도당책임일군들이 보고서나 결정서같은 것을 도당 선전선동부일군들과 도일보사 기자들을 동원하여 씌우고 있는데 이것은 도당책임일군들이 아직도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¹⁰⁶⁾라고 개탄하였고, “지금 적지않은 당일군들이 강연이나 연설도 제대로 할줄 모릅니다. 우리 당일군들이 자질이 낮은 원인은 지난날 학교를 체계적으로 다니지 못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틀만 차리면서 허심하게 배우지 않는데 있습니다”¹⁰⁷⁾라고 말하였다. 그는 무식자체를 개

105) 위의 책, pp. 481~83.

106) 김정일, “현시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5.6.1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357.

탄한 것이 아니라 간부들의 나태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결국 김정일은 간부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다.¹⁰⁷⁾ 즉 그는 선전선동부일군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幹部分析事業을 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간부사업을 履歷文件에 의해서만 집행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간부들에 대한 評定書를 쓰는 방법이 형식적이라고 비판하고 간부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내려가 군중의 의견과 현장사정을 직접 시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당책임지도원들은 도에 내려가서 도급 기관간부들이 수요강연회, 금요노동, 토요일학습에 빠짐없이 참가하는가의 여부를 늘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地方主義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정일은 함경북도인들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였다. 그는 “함경북도제일주의, 지방주의를

107) 김정일,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1976.1.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445.

108) 김정일은 體制維持의 근간이 되는 간부에 대한 교육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간부교육강화 내용은 첫째, 간부들속에서 수령의 교시와 노작학습을 철저히 세우고, 둘째, 간부들에게 정세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선전선동부에서는 보도과 일군뿐만 아니라 모든 과의 일군들이 신문보다 많은 국제정보자료를 보도하는 조선중앙통신을 보도하도록 있다.

결정적으로 뿌리빼야 하겠습니다. 지금 함경북도에서 당정책이 무조건 관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함경북도제일주의, 지방주의가 작용하고 있는 것과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지도소조는 함경북도제일주의, 지방주의의 자그마한 요소와도 간한 사상투쟁을 벌려 그것이 다시는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¹⁰⁹⁾ 이것은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철저한 地方主義 척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주의가 그만큼 많은 폐해를 낳고 있었다는 증거이고 특히 함경북도가 심하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緣故主義 문제는 1980년대 후반에도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일은 친척, 친우, 동향, 동창, 사제관계, 안면관계에 의해 간부사업하는 것을 크게 경계하였다.¹¹⁰⁾

한편 김정일은 간부들의 충원원칙을 세웠다. 그는 당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대나 30대의 젊은 사람들로 충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패기와 충성심이 있는 40대, 50대도 같이 충원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¹¹¹⁾ 그러나 김정일은 ‘老

109) 김정일, “당정책관철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울데 대하여(1977.11.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489.

110)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1986.1.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 356.

111)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衰'에 대해서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당시 국가 부주석이었던 김동규가 1976년 6월 초에 개최된 정치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일의 간부임명과 해임절차에 대해 집중비판하였다. 즉 그는 김정일의 幹部青年化政策을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이용무(군총치국장), 유장식(정치위 후보위원), 지경수(당검열위원장), 지병학(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동조하였다. 김동규와 유장식은 특수교양소로 추방되고 지경수와 지병학은 병사하였다.¹¹²⁾ 어쨌든 이 사건 이후로 김정일의 간부 정책은 '老·中·靑 配合' 政策으로 변화되었다.¹¹³⁾

김정일은 1980년대에도 간부들의 '老衰'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였다. 그가 지적한 노쇠의 전형은 주관주의적 사업, 감정·취미에 의한 사업, 부정에 대한 외면 등이다.¹¹⁴⁾ 그러나 김정일은 정치범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완전 '숙청'을 자제하였다. 그는 당간부들을 적절한 기간 동안 '당적지

데 대하여(1974.2.2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p. 63~64. 현재 북한권력엘리트들은 70대, 60대, 50대, 40대 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북한 이것을 '老·中·靑 構造'라 말하고 있다.

112) 中央日報社, 「金正日」, pp. 112~20; 北韓研究所 編, 「北韓總覽」, pp. 209~301.

113) 中央日報社, 「金正日」, p. 142.

114) 김정일,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1983.1.14),”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pp. 45~46.

도'를 받게한 후 復權시키는 인사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최상층 권력엘리트 중 상당수가 '당적지도'를 받은 후 복권된 자들이다. 대표적 인물들은 오진우, 박성철, 강성산, 한성룡, 계응태, 최태복 등이다.¹¹⁵⁾ 결국 선전선동부는 간부들을 金日成主義로 확고히 무장시켜 인민들에게 김일성주의를 선전하도록 하고 각종 '혁명,' '투쟁,' '전투'에 인민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면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어떤 관계인가?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와의 관계를 “조직부는 의사와 같고 선전선동부는 약제사와 같다”¹¹⁶⁾고 설명하였다. 그는 간부들의 당생활정형을 통일적으로 정확히 評定하기 위하여 評定書는 조직부가 선전선동부와 합심하여 하나로 만들 것을 강조하였다.¹¹⁷⁾ 그리고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가 상호 밀접히 협력하여 수령교시와 당정책 관철을 위한 사업을 철저히 장악통제하도록 지시하였다.¹¹⁸⁾

115) 中央日報社, 「金正日」, pp. 144~48.

116)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8.2),”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220; 김정일,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1983.1.14),”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p. 47.

117)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8.2),”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196.

이러한 이유로 김정일은 당사업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部署本位主義에서 탈피하여 ‘配合作戰’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당생활을 조직지도부에서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전선동부도 당생활, 특히 당사상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지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¹¹⁹⁾

결국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 의한 恐怖政治를 통해 북한은 현재와 같은 초유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김정일은 관료나 인민들에 대해 강제적 방법만 동원한 것은 아니었다. 다음 장에서 고찰하는 바와 같이 黨·政·軍 관료들과 인민들에 대한 파격적 대우를 통해 충성을 유도하여 왔다.¹²⁰⁾ 특히 정권유지의 근간인 軍의 支持獲得을 위해 김정일은 1985년 4월 9명, 1992년 4월 664명, 1993년 7월 99명에 대한 장군승진을 단행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관료들에 대한 숙청을 삼가하고 일정기간의 ‘당적지도’ 후 復

118) 김정일, “당정책관철에서 혁명적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1977. 11.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488.

119)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르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2.2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66.

120) 김정일은 친필서한, 생일상, 환갑상, 진갑상 등을 통해 파격적인 선물을 주어 충성을 유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拙稿, “金正日體制와 對外開放政策,”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 (1994) 참조.

권시키는 인사정책을 시행하였다.¹²¹⁾ 그러나 김정일의 주된 통치수단은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철저한 통제와 감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문제는 두 기구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진정으로 ‘以身作則’하고 ‘人民大衆中心’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에 있다. 사실 김정일은 官僚主義와 勢道問題에 대해서 강도높은 비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는 1983년에 도, 시, 군 당위원회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주의의 팽배를 비판¹²²⁾한 이후 1991년 관료들의 부패와 관료주의에 대해서 강도높은 비판을 하였다. 즉 김정일은 간부들 중에 아직도 세도와 관료주의적 의식이 남아있음을 비판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하였다.¹²³⁾ 또한 그는 1992년에는 관료주의의 극복을,¹²⁴⁾ 1993년에는 사회주의 붕괴원인을 勢道와 官僚主義로 돌림으로써¹²⁵⁾ 북한에도 아직까지 관료들의 세

121) 李鐘奭, “김정일운명, 체제개편능력이 좌우,” 「月刊中央」 (1994.9), pp. 228~29.

122) 김정일,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1983.1.14),”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p. 18.

123)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1991.5.5),”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 pp. 77~81.

124)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1992.1.3),”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 pp. 122~23.

125)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은 허용될 수 없다(1993.3.1),”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 pp. 136~37.

도와 무사안일, 부패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향후 김정일이 세도와 관료주의, 부패 등을 척결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가 리더십 안정성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第Ⅳ章 金正日の業務執行成果

김정일은 후견자인 김일성의 絶對化가 곧 자신의 절대화라는 등식에서 후계자 피선 이후 김일성 절대화에 매진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라는 정책목표하에 크게 사상과 물질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화되었다. 즉 김정일은 全社會의 金日成主義化라는 국가목표를 설정, 관료와 인민들에 대한 思想統制를 통해 자유주의 의식을 불식시키는 한편 ‘최소한’의 물질적 유인만을 제고함으로써 유일사상 지도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김일성주의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상적 측면에서 전주민의 김일성주의자화, 물질적 측면에서 식·의·주 문제해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통성은 크게 事前的(ex ante) 정통성과 事後的(ex poste) 정통성으로 나뉘 볼 수 있다.¹²⁶⁾ 前章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김정일 리더쉽은 事前的 측면에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정권이 사전적 정통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事後的 失政이 많으면 국민적 지지가 급속히 저하된다는 점이다. 즉 만일 김정일이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북한인민들은 세습제도 자체에는 불만이 없다하더라도

126) 原田 鋼, 「政治學原論」(東京: 朝倉書店, 1982), pp. 128~29.

김정일 개인에 대한 불만은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증폭되어 ‘民亂’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이것이 원인이 되어 민란 자체에 의해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反政’ 즉 궁정쿠데타에 의해서 ‘王’이 교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후계자 시절 인민들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통치를 어떻게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가를 평가해 보는 작업은 김정일 리더십의 안정도 평가와 관련,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김정일이 1974년 당내에서 후계자로 선출된 이후 가장 역점을 두었던 목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전인민을 김일성주의자로 만드는 것이고, 둘째, 사회개조를 통해 공산주의의 ‘思想的 要塞’와 ‘物質的 要塞’를 확보하는 것이었다.¹²⁷⁾ 여기에서 우선시되는 것은 전주민을 김일성주의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김일성주의는 무엇인가? 북한이 주장하는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의 체계”이다. 곧 김일성이 ‘교시’한 사상과 그의 실천방법이었다. 이것은 김일성이 제시한 主體思想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군 등 사회전반에 확산시켜 김일성유일사상체계 확

127)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2.1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p. 2~3.

립과 김정일유일지도체계 확립을 위한 정치적 행동이었다.¹²⁸⁾ 김정일은 아버지인 김일성의 절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였다.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피선된 후인 1974년 2월 19일 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행한 결론인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통해 김일성의 革命思想을 金日成主義로 宣稱(‘2.19선언’)하였다. 물론 김정일은 이미 1970년 5월 김일성 혁명사상의 김일성주의화를 표방한 바 있었고, 이후 1971년 가을과 1973년 여름 등에도 김일성주의화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었다.¹²⁹⁾ 어쨌든 김정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¹³⁰⁾라고 결론지음으로써 그의 후계자 내정 이후의 첫 과업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사업임을 분명히 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全住民이 김일성주의자가 되고 全社會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김정일 정권 책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128) 교육도서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 제6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p. 8.

129) 위의 책, p. 3.

130)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2.1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3.

때문이다. 결국 ‘은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김일성이 사망한 현재도 제1의 국가목표로 설정되어 있고 따라서 이 사업은 김정일 정권하에서도 계속 추진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김일성의 ‘信託’에 의해서만 통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김정일이 수령 후계자로서의 지위공고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수행하였고 그 성과는 어떠한가를 분석해 본다.

1. 思想改造

김정일은 ‘2.19선언’에서 김일성주의자의 기본적인 품성을 수령에 대한 절대화, 신조화, 무조건성의 원칙 등의 준수라고 말하고 있다.¹³¹⁾ 즉 김정일은 수령에 대한 충성이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라고 규정하여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北韓人の 最高의 徳目으로 승화시켰다. 첫째, 絶對化는 ‘대를 이어’ 수령을 모시고 수령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신조화에 수령을 위해 목숨도 버린다는 것이고, 둘째, 信條化는 수령의 사상과 교시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며, 셋

131) 김정일,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2.1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15.

째, 무조건성의 원칙은 수령의 교시를 지상의 명령으로 따르고 교시관철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고 어떤 구실이나 이유를 붙임이 없이 교시를 관철하는 것을 의미한다.¹³²⁾ 따라서 북한인민들은 수령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草芥와 같이 버려야 한다고 교육받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주의화사업의 요체는 인간의 思想意識을 改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끊임없는 세뇌를 통해 인간의 정신을 개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김정일은 자본주의 국가에서처럼 물질적 유인을 통한 생산성 향상보다는 인간을 이타적으로 개조하여 生産意慾을 고취시키려는 의도에서 인간의 정신개조에 매진하였을 것이다. 둘째, 그는 수도승과 같은 내핍생활의 미화 즉 物慾은 죄악이라는 意識化를 통해 물질부족으로 야기된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 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김정일은 상시로 수령의 교시를 암송하도록 하고 ‘十誠命’인 「10대원칙」을 외우도록 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교시암송과 그 실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總和’制度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김정일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과는 심각한 階級鬭爭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³³⁾

132) 위의 책, p. 17.

133) 김정일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것은 ... 적대적사상 조류의 향거에 부딪치지 않을수 없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은 김일성주의화를 위해 먼저 간부들이 김일성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주의자가 된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인민들을 김일성주의자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³⁴⁾ 특히 선전선동부원들이 김일성주의의 요체를 먼저 把握·熟知하고 현실성있는 선전수단을 개발, 하급관료와 인민들의 사상교양을 높이도록 강조하고 있다.¹³⁵⁾ 여기에서 중요시되는 방법이 ‘혁명적 군중노선’¹³⁶⁾이었다. 즉, 김정일은 항일유격대식으로 인민 속에 들어가 ‘소탈하게’ 선전선동사업을 벌여야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¹³⁷⁾

김정일은 사상개조의 수단으로 영화, 가극 등을 이용하였다. 김정일은 영화예술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⁸⁾ 그는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부친

주의화가 진척될수록 불피코 사상분야에서의 계급투쟁은 더욱 첨예하고 심각해지게 될것입니다.”고 말하였다. 김정일,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2.1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19.

134) 위의 책, p. 22.

135) 김정일은 당사상사업이 아래로 잘 침투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하고 그 원인을 당관료들의 형식주의로 돌리고 있다. 위의 책, p. 37.

136)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에 대해서는 백두연구소 편,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 (서울: 백두, 1989) 참조.

137) 김정일이 선전선동을 위해 지시한 내용은 매우 자세하다. 구체적 내용은 위의 책, pp. 44~47.

인 김일성과 김일성의 동료들이 빨치산시절 체험했던 내용들을 극화 내지는 영화화하여 관료나 인민들이 그대로 답습하도록 하였다. 즉 김정일은 이러한 매체를 통해 관료나 인민들이 항상 빨치산시대의 의식상태를 보유하고 있도록 강요하였다.

한편 김정일은 1980년 6차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피선되었다. 그는 1980년 12월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비롯한 몇가지 문헌을 발표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6차 당대회보고를 통해 김일성주의화의 완성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의화 관철을 위해서는 모든 주민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령이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정확히 알려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높은 은덕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인식시켜야 한다”¹³⁹⁾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1981년 4월 「도, 시, 군 당위원회앞에 나서는 과업」을 발표하고 “당의 기초를 쌓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하는

138) 자세한 내용은 이우영, “김정일의 문예관 연구,” 民族統一研究院,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 (1993) 참조.

139) 교육도서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력사」, pp. 61~62.

사업입니다.”¹⁴⁰⁾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주의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主體思想을 보다 체계화하였다. 즉 김정일은 1982년 3월 김일성 70회생일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서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 주체사상선전의 전환점을 이룩하였다. 즉 그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제시되었던 주체사상을 집대성하였다. 그 내용은 주체사상의 창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주체사상의 역사적 의의 등이었다. 이후 이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라는 이름으로 10권의 책이 세부화되어 출판되었다.

김정일은 이미 「김일성저작집」, 「김일성저작선집」에 대한 출판작업을 착수하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전기」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혁명력사」 편찬사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그는 「인민들속에서」라는 回想實記를 내는 한편, 「조선의 별」을 비롯한 革命映畵를 만들도록 함으로써 이념적 기반을 공고히하였다. 김정일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등의 문헌을 더욱 심화발전시켰다.¹⁴¹⁾ 이것은 곧 그 자신에 대한 이상화작업이기도 하였다.

140) 위의 책, p. 64.

141) 교육도서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력사」, pp. 70~72.

그리고 김정일의 작품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86년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김일성주의를 ‘聖書’화하였다는 점이다. 이 담화의 의미는 1982년까지 막연하게 제시되었던 社會政治的 生命 문제를 체계화시켰다는 점과 ‘우리민족제일주의’를 표방하였다는 점이다.¹⁴²⁾

특히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김일성을 神格化하는 정점이었다. 즉 김일성은 생명을 창조하는 神이 된 것이다. 김정일은 여기에서 사회를 수령, 당, 대중으로 구성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라 규정하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도 개인처럼 생명이 있는 바, 그것이 곧 사회정치적 생명이고 이 생명의 중심은 최고뇌수인 首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민들은 사회정치적 생명의 중심인 수령을 믿고 의지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운명체인 수령, 당, 대중은 상호 革命的 義理와 同志愛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김정일은 1991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발표, 인민대중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김정일은 왜 인민들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을까? 첫째는 1989

142) 자세한 내용은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7.15),”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pp. 460~67.

년부터 시작된 社會主義圈의 崩壞過程에서 인민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무마책으로서 인민을 강조하였을 것이다. 둘째는 김정일이 “인민대중이 자주적 권리를 행사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결심과 판단에 따라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처리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듯이 식량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개인이 ‘자주적으로’ 해결토록 하는 입장에서 인민개인을 강조하였을 것이다.

결국 김정일이 主體思想을 金日成主義化하려 했던 목적은 첫째, 김정일에게 후계자로서의 카리스마 부여, 둘째, 김정일 반대파들의 숙청, 셋째, 김정일의 업적 창조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⁴³⁾ 그렇다면 북한의 관료 및 주민들은 어느 정도 김일성주의자가 되어 있을까? 이것에 대한 해답 또한 간단하지가 않다. 그러나 김일성이 사망한 후 북한인민들이 보여준 ‘狂信徒的’ 태도는 그것이 비록 동원과 공포에 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의 세뇌의 결과로서 어느 정도는 존경심의 발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인민들은 김일성에 대해 內面化 정도는 아니라도 同一視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⁴⁴⁾

143) 金甲喆·高性俊,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서울: 文佑社, 1988), pp. 136~39.

144) 귀순자 김만철씨에 의하면 1987년 병을 고쳐주면 환자는 의

2. 經濟政策

김정일은 전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위해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찾아내며 제기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¹⁴⁵⁾라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自力更生에 입각한 人民生活 向上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1973년 사회주의제도 수립 이후의 사상, 기술, 문화 관련 舊時代的 遺物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상, 기술, 문화 3분야에 대한 혁명을 통해 舊時代 잔재의 청산을 주장하였다. 물론 3대혁명은 繼續革命論에서 발로된 것이었다는 점은 前 章에서 서술하였다. 김일성은 3대혁명 담당세력으로서 3대혁명소조를 조직하였고 이들은 당핵심들과 청년인테리들로 수십명씩 소조로 구성되어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내보

사인 자신에게가 아닌 김일성에게 감사표시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남명철 씨는 북한인민들이 김일성·김정일에 대해 감히 의심을 품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즉 의심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김영성 씨는 김일성·김정일에 대해서는 공포심으로 인해 비판을 하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145) 교육도서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력사」, p. 62.

내었다. 김일성이 3대혁명소조를 파견한 의도는 첫째, 노쇠한 간부들을 재교양하고, 둘째, 새로운 과학기술을 농장과 기업소에 보급하고 셋째, 혁명적 군중노선을 강화하는데 있었다.¹⁴⁶⁾

그러나 3대혁명소조운동은 3대혁명소조들과 공장, 기업소, 농장 당조직과의 공동작전이 원만하지 못하여 “현지일군들에 대한 지도와 방조가 깊이있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3대혁명소조운동이 각 지역 및 생산단위 당위원회와 근로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됨으로써 통괄적인 지휘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김정일은 金日成主義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1974년부터 3대혁명을 직접 관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건설, 운수, 과학, 교육 등 모든 부문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공업과 농업부문 3대혁명소조의 個別指導體系를 없애고 單一體系로 당중앙위원회가 장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는 중앙과 도, 시, 군에 있는 3대혁명소조종합실을 3대혁명소조지휘부로 전환하였다.¹⁴⁷⁾ 그것은 김정일의 唯一指導體制 確立策의 일환이었다.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였고 직접 강습계획과 강습내용까지 지도하였다. 그는 3대혁명소조

146)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p. 487~88.

147) 교육도서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력사」, p. 19.

사업을 독려키 위해 1976년 한 해에만 30여 차례의 실무지도와 400여건의 친필과업을 주었다. 그는 3대혁명소조운동 결과 산업용 티브이와 송상관, 콕스절약을 통한 질향상, 다수확품종 개발 등의 성과를 내었다고 자랑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은 소조원들에게 각종 선물과 ‘共和國英雄’稱號를 줌으로써 생산의욕을 고취시켰다.

한편 김정일은 1975년 11월 3대혁명소조운동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으로 발전적 해체를 하였다.¹⁴⁸⁾ 이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 착안한 것으로서 1975년 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되었다. 시범사업은 1975년 12월 1일 검덕광산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김정일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속도전, 사상전의 원칙을 구현하여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 문화, 국방 건설에서의 집단적 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튼튼히 갖추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새로운 대중적운동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중심과업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전면적으로 더욱 다그치는데 있습니다”¹⁴⁹⁾라고 설

148)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490.

149) 김정일,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

명하였다. 그런데 김정일이 3대혁명소조운동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으로 확대한 이유는 군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군은 1968년 軍事冒險主義를 펴기까지 초월적인 지위를 누려왔고 청와대 습격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부 혁명 1세대들이 숙청당하기는 하였지만 그 여파는 1970년대까지 남아있었다. 따라서 김정일은 軍에 대한 統制強化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해 실현하였다.¹⁵⁰⁾

김정일의 물질유인수단은 특이하였다. 김정일은 인민들의 물질생활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운동정책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어떤 리더든지 피지배자들에 대한 動機附與(motivation)를 통해 통치해간다. 그러나 김정일의 그것은 빈도수가 너무 많았다. 이 운동정책은 일정기간 동안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생산방식이다. 물론 이것은 의도한 만큼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¹⁵¹⁾

과업에 대하여(1976.1.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6.

150) 김정일이 軍에 대한 통제를 언제부터 시작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군도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영역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고, 따라서 1975년부터 군에 대한 본격적 통제가 시행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다만 그 방법은 군내부의 청년장교나 군관학교졸업예정자, 군총정치국 등을 통해 실시되었다. 김정민 씨의 증언, 1994.8.15.

151) 자세한 문제점들은 崔周煥, 「北韓經濟論」(서울: 大旺社, 1992)

즉 運動의 日常化로 인해 주민들의 경각심과 집중력은 저하되었고 당연히 생산성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다.

김정일은 물질적 토대구축을 위해 6개년계획(1971~1976)의 조기완수와 10대경제건설목표 달성¹⁵²⁾을 위해 ‘속도전’을 전개하였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었다.¹⁵³⁾ 속도전은 당 중앙위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의 주요한 정책구호로 채택되었는데 이것을 김정일이 구체적으로 실천했다. 속도전은 김일성의 主體思想과 繼續革命論에 입각해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인민들의 노동력에만 의존하여 발전을 시도하는 原始的 生産性向上 방식이었다.

이러한 노력동원에 의한 생산방식은 많은 마찰을 일으켰다. 그것은 ‘70일전투’ 사업때 극명하게 나타났다. ‘70일전투’는 1974년 10월 9일 담보상태에 있었던 6개년계획¹⁵⁴⁾을 완수

참조.

- 152) 김일성은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하였다.
- 153) 김정일, “온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2.1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25.
- 154) 6개년계획은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첫째, 경노동과 중노동의 차이 극복, 둘째,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 극복, 셋째, 여성들의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등 3대기술혁명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하기 위해 김정일이 제창한 사업이었다.¹⁵⁵⁾ 김일성은 6개년계획의 후반기인 1974년에도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자大怒하였고 이것을 김정일이 만회하기 위하여 ‘70일전투’를 벌였다. ‘70일전투’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행정관료들의 요령주의, 형식주의, 保身主義, 보수주의를 척결하고, 둘째,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黨的指導를 강화하는 것이었다.¹⁵⁶⁾

김정일은 ‘70일전투’의 완수를 위해 거의 혁명적 조치를 취하였다. 즉 그는 전인민을 총동원하고 그렇게 중요시하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의 재접수, 재토의사업도 연기하고, 2일, 3일, 주 및 10일 당총화사업을 이 기간 동안에는 10일당총화사업만 하도록 하였고 모든 회의를 중지하였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금요노동을 중지하고, 토요일학습을 2시간으로, 수용강연회를 1시간으로 축소하였다.¹⁵⁷⁾

김정일은 ‘70일전투’의 효율적 집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도소조를 새로 만들고 3대혁명소조를 총동원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다른 國政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이것은 김

458.

155) 김정일은 ‘70일전투’를 강조하면서 채굴공업, 수송문제, 수출문제를 중심과제로 제시하였다

156) 김정일, “전당이 동원되어 70일전투를 힘있게 벌이자(1974.10.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p. 246~47.

157) 김정일, “전당이 동원되어 70일전투를 힘있게 벌이자(1974.10.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256.

정일의 성격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사업이었다. 즉 김정일은 일단 계획을 세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추진하는 성격이다.¹⁵⁸⁾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老衰’官僚들이 철직당하였고 이것은 노간부들의 커다란 불만을 야기시켰다. 물론 이를 바탕으로 출세한 자들도 없지 않았다.¹⁵⁹⁾

한편 김정일은 1978년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연설을 통해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당이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전략적구호입니다”¹⁶⁰⁾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김정일이 이미 1978년부터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본틀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김정일은 ‘우리식’대로 사는 것은 모든 문제를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에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가 표방되기 시작한 시초였다.

김정일은 경제발전을 위해 제2차 7개년경제발전계획기간

158) 김정일 성격에 대해서는 拙稿, “金正日體制와 對外開放政策,” 民族統一研究院, 「統一研究論叢」, pp. 21~24 참조.

159) 中央日報社, 「金正日」, pp. 122~123. 김정일은 300여명에게 노력영웅칭호를, 15만명의 혁신자들에게 국가훈장과 메달을 수여하였다. 김정일도 70일전투의 공로로 1975년 2월 영웅칭호를 받았다.

160)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501.

초년부터 ‘70일전투식’ 사업방법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을 최고조의 긴장상태로 유지, 생산성을 향상시킬려는 의도에서였다. 제2차 7개년계획기간(1978~1984)이 시작되는 1978년 5월에 안주탄광에서 ‘100일전투’가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당관료들의 行政代行主義¹⁶¹⁾였다. 김정일은 당관료의 행정대행주의에 대해 이상하리 만큼 과민반응을 보였다. 김정일은 기회있을 때마다 당료들의 行政代行主義를 비판해 왔다.

한편 이 기간 동안에는 석탄채취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주어졌고 ‘수송혁명 200일전투’가 벌어졌다. 그만큼 석탄부족이 가속화되었다는 의미도 된다. 어쨌든 북한은 채취공업과 철도운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¹⁶²⁾ 또한 김정일은 1979년 7월에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 시작하였고 1978년 2월 ‘2월 17일 과학자돌격대,’ ‘5.19기술혁신돌격대(후에 4.15기술혁신돌격대로 변경)’를 만들었고 이것을 모든 부문, 모든 단위로 확산하도록 하였다.

김정일은 1979년 10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

161) 이것은 당간부가 행정경제 간부들이 해야할 업무, 즉 부족물자공급문제 등을 지도차원을 넘어 직접 해결해 주는 일을 의미한다.

162)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500.

는 운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켜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만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적운동입니다”¹⁶³⁾고 말하였다.

이 운동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기 위한 … 대중적혁신운동’이다. 여기에서 숨은 영웅은 ‘누가 알아주건말건 자기의 모든 것을 묵묵히 바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을 위하여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살며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김정일은 설명하고 있다. ‘숨은 영웅따라배우기 운동’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함께 북한의 2대 大衆運動으로 정착하였다.¹⁶⁴⁾

1980년대에 접어 들어서도 金正日은 경제문제해결을 위해 매년 각종 운동과 구호를 제창하였다.¹⁶⁵⁾ 그러나 이러한 운동

163) 교육도서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력사」, p. 40.

164)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502.

165) 1980.6: 「100일전투」

1981.7: 「새기준새기록창조운동」

1982.6: 「26호 선반따라 배우는 모범기대 창조운동」

1982.7: 「80년대속도창조운동」

1984.1: 「혁명전사모범따라배우기운동」

1984.8: 「8.3가내작업반창조운동」

1985.6: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

과 구호는 인민을 피곤하게 하였고 ‘緊張의 日常化’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오히려 정신을 이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歸順者들은 증언하고 있다.¹⁶⁶⁾

또 하나의 문제는 김정일이 인민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記念碑的 大建築物’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김일성우상화용 사업이었다. 김정일은 1979년 3월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앞두고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건설하는 것은 전체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수령님 탄생 70돐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민들이 수령님께 드리는 지성어린 선물입니다”¹⁶⁷⁾고 말하여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건설을 발의하였다. 그는 이 사업의 正當化를 위해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을 거쳤고 全黨, 全民을 기념비건설로 내몰았다. 그는 건설을 지도하기 위해 중앙지

1987.1: 「제3차 7개년계획 청년봉사상쟁취운동」

1988.2: 「200일전투」

1988.7: 「새200일전투」

1989.6: 「경공업혁명 청년선봉대 쟁취운동」

1990.1: 「90년대속도창조운동」

1990.3: 「증산절약모범작업반운동」

1993.5: 「우리식사회주의총진군속도운동」

1994.1: 「근검절약운동」

166) 김영성 씨의 증언, 1994.3.9.

167) 교육도서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력사」, p. 73.

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충성의 돌격대를 만들었으며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즉 자재나 자금부족 문제를 ‘통이 크게’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김정일은 “평양시에서는 모란봉경기장증축공사를 잘하여 사적이 깃든 경기장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고 말하여 모란봉경기장을 偶像化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였다. 모란봉경기장은 김일성이 1945년 귀국연설을 한 곳이었다. 이 경기장은 증축 후에 김일성경기장이 되었다. 이후에도 김정일은 인민대학습당, 빙상관, 청류관, 평양제1백화점, 만경대유회장 등 ‘기념비적 대건축물’을 건설하였다. 아울러 그는 전국에 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선물관 등을 건설·보수하였다.¹⁶⁸⁾

결국 이러한 大建築物들의 건설은 김일성우상화에는 기여했을지 모르나 국고의 낭비를 가져 왔고 인민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김정일의 정치적 인기를 하락시키고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김정일은 공식적 후계자가 된 이후 인민경제향상을 위해 對外貿易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갔다. 물론 김정일의 經濟觀은 자력갱생노선인 것만은 분명하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자면 자

168) 위의 책, p. 74.

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¹⁶⁹⁾라고 강조하고 자력갱생을 위해서는 기술자립, 기술인재자립, 원료·연료기지자립이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립경제는 다른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¹⁷⁰⁾라고 말하여 自立主義와 孤立主義를 구분하려 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우선교역국들은 사회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들이었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3년 中國을 방문하였다.

김정일이 對外貿易을 중시하게된 이유는 인민경제의 낙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1983년 “인민들에게 빈 밥그릇을 놓고 사회주의제도가 좋다고 선전하여서는 그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옳게 인식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조국의 튼성번영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겠

169)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3.3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46~49.

170) 위의 책, p. 50.

다는 혁명적 각오를 튼튼히 가질수 없습니다”¹⁷¹⁾라고 말하여 인민경제생활향상을 위해 당의 역량을 총집중할 것을 지시하고 ‘당의 경제정형에 대한 장악통제사업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당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보다 세세히 간섭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와 함께 김정일은 당중앙위 경제부서 책임관료들의 ‘非現場性’을 비판하였다. 즉 그는 “당중앙위원회 경제부서 책임일군들을 놓고 보아도 전후복구건설시기에 다른 나라에 가서 류학하였거나 망치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 사무실책상우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는 것은 수령님께서 50년대와 60년대에 보여주신 사업방법과는 거리가 멍니다”¹⁷²⁾라고 지적, 海外派들의 卓上空論을 비판하였다.

아울러 김정일은 1984년부터 人民生活向上을 위한 구체적 조처들을 보다 강화하였다. 즉 그는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171) 김정일,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1983.1.14),”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p. 25. 이것은 1984년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에서도 재차 강조된다.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1984.2.16),”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pp. 91~92.

172) 김정일,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1983.1.14),”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p. 36~37.

데 대하여」를 통해 농업발전, 경공업발전, 유통발전, 급양사업발전, 편의봉사사업발전, 주택건설 확대 등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¹⁷³⁾ 김정일은 동년 8월 3일 평양시경공업제품전시장을 현지지도하고 인민들을 위한 생필품증산에 매진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⁷⁴⁾ 이 때에 특이한 점은 김정일이 상점매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 당시까지도 상점을 개방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金正日의 지시가 상품부족으로 인해 실천되지 못하였고 이것은 김정일이 현실을 파악하고 있지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한편 북한은 1984년 1월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발표, 對外經濟事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9월에는 「합영법」을 제정, 대외무역을 적극화하였다. 김정일은 1986년에는 대외무역과 경제적 자립이 상호모순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였다. 즉 그는 “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첫자리에 놓고 적극 밀고 나가야 합니다. 무역을 하여 원유와 콕스탄, 생고무

173)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1984.2.16),”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pp. 92~109.

174) 김정일,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4.8.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pp. 199~211.

와 같은 원자재를 들여와야 철강재와 자동차, 트랙또르도 생산하고 경공업공장들을 돌려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도 만들수 있으며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많이 잡을수 있습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적 자립에 모순되지 않으며 반대로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과 그 위력을 공고히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달된 나라도 무역을 하여 여러나라들과 유무상통하지 않고서는 잘살수 없습니다”¹⁷⁵⁾라고 말하여 ‘主體式 實用主義’를 강조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인민경제향상 수단으로 외화벌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¹⁷⁶⁾ 그는 이를 위해 마약매매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외화벌이를 위해 김정일은 經濟特區를 고안해 냈고 「우리식 사회주의」 유지라는 기본틀 내에서 개방 관련법들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다. 즉 그는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인소득세법」을 비롯하여 「외국인기업법」,

175)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1986.1.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p. 380.

176) 물론 김일성도 이미 1972년 10월 당중앙위 제5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외화벌이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즉 그는 “우리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나라들과의 거래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고 말하였다. 김일성,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486.

〈표 3〉 개방 관련 주요 법령

년월일	주요 법령	비고
1984.9.8	합영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
1985.3.7	외국인소득세법 합영회사 소득세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
1985.3.20	합영법 시행세칙	정무원 결정 제14호
1985.5.17	합영회사 소득세법 세칙	정무원 결정 제22호
	외국인 소득세법 세칙	정무원 결정 제23호
1991.12.28	(나진·선봉지구 경제특별 지역 선포)	정무원 결정 제74호
1992.4.3	상업법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
	도시경영법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
1992.4.9	헌법 제37조 (외국과의 합영합작의 근거 규정)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헌법수정시 반영
1992.10.5	외국인투자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7호
	합작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
	외국인기업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
1992.10.16	합영법시행세칙(개정)	정무원 결정 제148호

〈표 계속〉

1993.1.31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6호
	외화관리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7호
	자유무역지대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
1993.10.27	토지임대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2호
1993.11.24	외국인 투자은행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2호
1993.11.29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 규정	정무원 결정 제75호
1993.12.30	외국투자기업 노동 규정	정무원 결정 제80호
1994.1.20	합영법 전문개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1994.2.21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 규정	정무원 결정 제8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 규정	정무원 결정 제9호
1994.3.27	외국인기업법 시행 규정	정무원 결정 제13호
1994.4.28	자유무역항 규정	정무원 결정 제20호

「외국인투자법」, 「자유무역지대법」 등을 발표하여 외국의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일은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특히 美國과의 宥和的 關係維持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¹⁷⁷⁾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

정하고, 1992년 「정무원결정」을 통해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전제하는 한편 대외무역사업을 ‘전면적이고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다. 김정일은 1993년 12월 경제낙후를 인정하고 향후 2~3년간을 완충기로 설정, 이 기간 동안 농업, 경공업, 무역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革命的 經濟戰略’으로 설정하였다.¹⁷⁸⁾ 특히 그는 무역과 관련 부족한 외화와 낙후된 기술습득을 위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美國을 비롯한 西方國家들과의 대외관계를 원만히 하려 하였다. 물론 이것이 資本主義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¹⁷⁹⁾

177) 김정일은 1984년 三者會談을 제의하였고, 미국의 유력인사들을 초청하였다. 물론 이것은 인민외교의 일환이기도 하였지만 가능하면 그들의 宥和的 態度를 전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에 1991년 핵문제가 주요 잇슈로 등장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였다. 핵문제는 본래 군사적 목적에서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이제 그것은 외교카드로 변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핵카드를 최대한 이용,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反美主義를 완전히 포기할 것이냐는 문제는 미국의 대북태도에 따라 변할 것이다.

178)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拙稿,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義 結果分析」(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4) 참조.

179) 김정일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른바 <다원주의>가 허용될

김정일은 수령 후계자로서의 權威確保를 위해 주택건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는 1989년 12월부터 광복거리와 통일거리에 ‘살림집’ 5만세대건설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것을 1992년 김일성 80회생일에 맞추어 완성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통일거리 2단계건설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1만 6천세대 아파트건설을 약속하였다. 결국 김정일은 1962년부터 김일성이 공약해 왔던 ‘경제4대목표(쌀밥, 고깃국, 기와집, 비단옷)’를 해결함으로써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 하였

〈표 4〉 북한 GNP의 연평균 성장률 추이

(단위: %)

71~75	76~80	81~84	86~89	1990	1991	1992	1993
20.4	4.1	4.3	2.4	-3.7	-5.2	-7.6	-4.3

자료: 1971~1989년은 I. Jeffries, *Socialist Economies and The Transitions to The Market: A Guide* (London: Routledge Publishing Company, 1993), p. 197; 1990~1993년은 한국은행, 「북한 GNP 추정결과」(서울: 한국은행, 각년도).

수 없습니다. <다원주의>가 표방하는 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정치방식입니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인민대중의 통일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이므로 사회주의와 <다원주의>는 양립될수 없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유주의 내지는 자본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 p. 93.

으나 <표 4>에서처럼 그의 등장 이후부터 북한경제는 침체의 지속 즉 ‘貧困의 日常化’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직장운영방식은 ‘외화벌이’에 대한 중요성을 증폭시켰고 이로 인해 기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대외정보유입이 증가됨으로써 社會逸脫者들이 증가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물론 김정일은 사회통제기구를 통해 관료와 인민들에 대한 사상·이동통제를 강화하고 있다.¹⁸⁰⁾ 따라서 현재까지는 連坐制式 강압정책과 인민들의 저급한 정치의식으로 인해 表出力보다는 統制力이 우세한 상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증하는 인민들의 불만은 김정일이 향후 개방을 강화할 것이냐, 통제와 폐쇄를 지속할 것이냐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를 도래하게 할 지도 모른다.

180) 북한은 지난 1992년 10월부터 1993년 말까지 자본주의 풍조 근절, 부정부패 척결 등을 위해 ‘비사회주의타파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世界日報」, 1994.8.17.

第 V 章 結 論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김정일 리더십의 안정성에 대한 疑懼心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의문의 주된 내용은 그가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통치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북한과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북한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느냐 못하느냐는 통일 시기와 방법, 費用問題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김정일 리더십이 安定的일 것이냐 不安定的일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김정일 리더십의 안정성을 고찰하기 위해 스톡딜(R. M. Stogdill)의 리더십 特性理論을 원용하여 첫째, 그의 리더십은 정당성이 있는가? 둘째, 그는 엘리트 및 강제기구를 효율적으로 장악하고 있는가? 셋째, 그는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하였는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로 베버의 세 가지 支配類型論 중 傳統的 支配 方法을 원용하여 김정일 리더십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보았다. 전통적 지배는 오랜 전통이나 관습이 통치자의 지배에 正當性의 근거를 제공하여 준다. 즉 장기간의 전통과 관습 때문

에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국민이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지배하에서는 전통 그 자체가 최고의 권위이다. 그런데 전통적 지배의 가장 순수한 형태는 家父長制이다. 가부장제란 가족공동체 안에서 가장에 대한 효성과 무조건적인 헌신, 복종이 미덕이 되는 제도이다. 그리고 가부장은 세습이 되어진다. 가부장제 중 동양사회에 맞는 형태는 家産制이다. 가산제는 군주가 국가를 개인재산처럼 취급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가? 북한은 수령을 아버지로, 국가를 ‘大家庭’으로 치환하여 충성과 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儒教的 家父長制 국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지배의 정당성은 가산제처럼 家長인 김일성의 長子인 김정일의 세습에서 도출된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김정일은 1974년 당내에서, 1980년 당내·외적으로 수령의 후계자가 되었으며 현재 그는 북한의 최고권력자로서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비록 전통적 지배 방법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그가 김일성의 長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상속자가 된 것은 아니다. 만일 김정일이 장자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는 상속권을 상실하였을 것이다. 즉 김정일은 수령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고 그것이 가부장인 金日成과 幕僚들에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후계자 김정일에 대한 北韓人民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김정일로의 승계문제도 일반주민들은 家産이 長子에게 물려지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즉 북한인민들은 국가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인식하고 家長은 김일성, 長子는 김정일로 상정, 설령 김정일이 김일성만큼은 특출한 능력이 없더라도 그가 정신적·육체적 불구자가 아닌 한은 어쩔수 없다는 자포자기적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

결국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權力移讓은 전통적 방식의 정당성 획득양식을 띄고 있고 북한인민들의 臣民的 政治文化는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시켜주는 토대가 되고 있다. 물론 시간의 흐름과 외부정보유입 증가로 북한인민들의 自意識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김정일의 정당성을 훼손할만큼 강한 것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前近代的인 요소인 인정, 의리, 연고, 예절을 주요 덕목으로 삼고 있는 북한인민들이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있는 김정일에 도전하는 행위나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김정일의 엘리트 및 강제기구 장악력을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군부 등을 감시·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最高強制機構인 당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장악 여부를 고찰해 보았다. 당조직지도부 및 선전선동부는 당 자체뿐만 아니라 군부·정무원·사회단체 등

을 감시·통제하고 이들에 대한 人事權을 행사함으로써 북한 체제를 유지해 가고 있다. 김정일은 당중심국가인 북한에서 1974년부터 당관료로 등장하여 당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통해 당권장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唯一指導體制를 확립할 수 있었고 1980년에는 공식적인 後繼者가 될 수 있었다. 그는 후계자가 된 이후 당·정·군, 대내·외 분야에 걸쳐 폭넓은 리더십을 행사하였다.

그는 1974년 이후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지던 당조직 사업을 각종 ‘總和’制度를 통해 당조직지도부로 일원화시켰고 당선선전선동부를 통해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당관료들이 비판을 받았고 철직과 ‘黨的指導’를 받았다. 그 결과로 알려진 것처럼 수많은 북한의 고위관료들이 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되었다. 김정일이 1974년 이후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현재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 이유는 첫째, 북한의 독특한 권력획득과정, 둘째, 강제기구 장악을 통한 권력엘리트 및 인민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 셋째, 김정일 개인의 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 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김정일은 당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의 장악을 통해 군, 국가정치(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등을 통제하고 또한 이들은 관료와 인민들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唯一指導體制를 확립, 체제유지를 위한 리더십을 효율적으로 행

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셋째로 김정일이 ‘수령 후계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의 풍부화를 어떻게 실천하였는가를 고찰해 보았다. 정당성에는 事前的 정당성과 事後的 정당성이 있다. 따라서 김정일이 비록 사전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적 정당성 즉, 善政에 의한 支持獲得에 실패한다면 그의 리더쉽은 매우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우선 김정일은 ‘金日成教 信從’인 인민들에게 ‘예언가’로서의 면모과시를 위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선포하고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승격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즉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등을 발표, 사상가로서의 자질을 과시하는 한편, 북한 全人民을 金日成主義者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은 전인민을 김일성주의자로 개조하기 위해 思想革命, 主體思想學習, 總和制度 등을 강화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인간의 노동력 동원을 통한 生産性 향상을 위해 각종운동 및 전투를 창안해 내었다. 즉 그는 3대혁명소조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80년대속도창조운동, 90년대속도창조운동, 70일전투, 100일전투, 200일전투 등 수많은 증산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그는 살림집 5만호건설 사업 등 인

민들의 실질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1983년도부터 人民生活 增進을 위해 생필품증산을 독려하여 왔고 외화획득을 위해 합영법을 비롯한 각종 개방 관련법을 정비하고 特區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家系偶像化作業인 ‘기념비적 대건축물’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을 낭비하였다. 즉, 개선문, 주체탑, 인민대학습당, 류경호텔(미완성) 등과 각종 초대소, 각종 기념탑·동상, 각종 혁명사적지 등을 건설하기 위해 재정을 소비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물론 그의 이러한 비경제적 리더쉽은 사회주의 체제와 세습왕조적 체제의 산물로서 市民社會가 발달되지 못한 저급한 문화수준에 있는 북한에서 커다란 정치적 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김정일이 ‘救世主’로서 물질적 보상을 인민들에게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이러한 실적들은 ‘憤怒의 火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북한경제는 1974년 이후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1990년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은 점증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事前的 側面에서 김정일 리더쉽은 안정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수령의 후계자’라는 배경과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 내부 통제력을 통한 엘리트와 인민들의 장악 등을 무기로 국가목표달성에 필요한 리더쉽

은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김정일은 자신이 인정하고 있듯이 ‘은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즉 道·農間 격차,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격차 등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관료와 인민의 불만이 서서히 노정되고 있다. 특히 經濟的 窮乏은 官僚를 腐敗시키고 인민들을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失望으로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事後的으로 김정일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리더쉽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발휘하느냐의 여부가 長期的 觀點에서 김정일 리더쉽 安定性 與否를 決定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參考文獻〉

1. 單行本

교육도서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 제6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김명훈. 「리더십論」. 서울: 大旺社, 1980.

김민·한봉서 공저.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9: 령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金甲喆·高性俊.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 서울: 文佑社, 1988.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 서울: 한울, 1987.

김학준. 「한국전쟁」. 서울: 박영사, 1993.

남북문제연구소. 「북한인권의 虛와 實」. 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3.

朴奎植. 「김정일평전」. 서울: 陽文閣, 1992.

朴乃會. 「現代리더십論」. 서울: 法文社, 1993.

方仁厚. 「北韓 '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 서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0.

裴垣達. 「北韓權力鬭爭論」. 서울: 학문사, 1990.

백두연구소 편.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 서울: 백두, 1989.

- 北韓研究所 編. 「北韓總覽」. 서울: 北韓研究所, 1983.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徐載鎭·金台鎰.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 梁性喆. 「北韓政治研究」. 서울: 博英社, 1993.
- 양성철. 「분단의 정치」. 서울: 한울, 1987.
- 梁好民 外. 「共產主義 批判」. 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81.
- 吳允晉. 「리더쉽론」. 서울: 日善出版社, 1994.
-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출판사 미상, 1989.
- 李容弼. 「共產主義理論批判」. 서울: 大旺社, 1982.
- 林 隱. 「金日成正傳」. 서울: 沃村文化社, 1989.
- 全賢俊.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4.
- 全賢俊 外.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中央日報社. 「金正日」. 서울: 中央日報社, 1994.
- 중앙일보사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권. 서울: 중앙일보사, 1992.
- 최성준 저.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

- 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崔周煥. 「北韓經濟論」. 서울: 大旺社, 1992.
- 통일원. 「김정일우상화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2.
-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 서울: 백산서당, 1990.
- 黃山德. 「막스 베버」. 서울: 瑞文堂, 1977.
- 原田 鋼. 「政治學原論」. 東京: 朝倉書店, 1982.
- Almond, Gabriel A. and Powell, G. Bingham. Jr. *Comparative Politic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8.
- Bendix, Reinhard. *Max Weber*.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62.
- Burns, James M. *Leadership*.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8.
- Lasswell, Harold D. *Power and Personality*. New York: Norton, 1948.
- Merriam, Charles E. *Systematic Polit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5.
- Michels, Robert. *Political Parties*. Glencoe: The Free Press, 1958.
- Skocpol, Theda.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Stogdill, Ralph M. *Handbook of Leadership*. New York: The Free Press, 1974.
- Suh, Dae-Sook. *Kim Il Su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2. 論文

- 김국훈.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원칙.” 「근로자」 (1970.5).
- 김용복. “해방 직후 북한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김남식 외. 「解放前後史의 認識 5」. 서울: 한길사, 1989.
- 김일성.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김일성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1967.5.25).”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 .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위원회 사업 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 “혁명가유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뜻을 이어 혁

- 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1967.10.11).”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울데 대하여(1973.8.2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당정책관철에서 혁명적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1977.11.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488.
- .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 5.5).”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7.15).”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 . “현시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5.6.1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1986.1.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 . “당사상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르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2.2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73.11.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8.2).”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당정책관철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울데 대하여(1977.11.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1992.1.3).”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1993.3.1).”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2.1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1976.1.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1974.12.6).”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1984.2.16).”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 .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1974.4.14).”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울데 대하여(1973. 8.2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전당이 동원되어 70일전투를 힘있게 벌이자(1974.10.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4.8.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 .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3.3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 “현시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

로동당출판사, 1987.. 349.

———.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1983.1.14).”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1976.2.6).”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김주환. “해방 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김남식 외. 「解放前後史의 認識 5」. 서울: 한길사, 1989.

都興烈. “엘리트 形成과 循環.” 도흥렬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박성환. “한국의 가산제 지배구조와 그 문화적 의의.” 유석춘 편. 「막스 베버와 동양사회」. 서울: 나남, 1992.

申敬完. “金正日體制의 強點과 弱點 그리고 人民抗拒.” 「月刊中央」(1991.7).

엄기형. “항일유격대원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 「근로자」(1967.7).

李相禹. “김일성체제의 특질.” 李相禹 外. 「북한40년」. 서울: 乙酉文化社, 1988.

이온죽. “북한소설에 나타난 사회적 가치관과 인간관계유형 분석.” 국토통일원. 「북한사회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88.

이우영. “김정일의 문예관 연구.” 民族統一研究院,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 (1993).

李鐘奭. “김정일운명, 체제개편능력이 좌우.” 「月刊中央」 (1994.9).

田溶憲. “北韓政治體制的變化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政治外交學科 博士學位論文, 1991.6).

全賢俊. “金正日體制와 對外開放政策.”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 (1994).

崔 星. “首領體系的 形成過程과 構造的 作動메카니즘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政治外交學科 博士學位論文, 1993.12).

洪淳寬. “가까이서 본 김일성.” 「世界日報」. 1991.10.23, 30.

Weber, Max. “The Routinization of Charisma.” in Etzioni, Amitai, and Etzioni-Halevy, Eva, eds. *Social Change*.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3.

3. 其他

귀순자 김정민, 김만철, 김영성, 남명철 씨의 증언.

「로동신문」.

「북한중앙방송」.

「북한평양방송」.

「世界日報」.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의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關聯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 事例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契機로 본
亞·太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展開過程 및 發展展望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金正日 리더십 研究

研究報告書 94-07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4년 10월 일

發行日 1994년 10월 일
